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 正體性의 위기

保守주의 「원칙」 지켜야 나라 살린다

한 혈통 세 혈맥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이는 生物學的으로 우리 '혈통의 맥'은 하나 라는 의미이다. '韓民族'이라는 말이 이 '혈통의 맥'을 상징하고, 그것도 거의 순혈에 가까운 맥(脈)과 한번도 단절이 없었던 면면(綿綿)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生物學的 측면에서다.

社會學的으로는 지금 우리는 세 개의 '혈통의 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혈맥'이라고 줄여서 쓰는 이 혈통의 맥은 순전히 생물학적 용어이지만, 사회학적으로도 생물학적 차이만큼 사고와 행동이 확연히 차이 지어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 똑 같이 쓰는 말이다. 우리는 서로 사고방식과 행위유형을 달리할 때 "저 사람은 우리와 혈통이 다르다" 혹은 "혈맥이 다르다"고 버릇처럼 말한다. 영어에서도 린이지(lineage)라 해서 생물이든 사회든 그 계보를 나눌 때 혈맥이라는 말과 다름 없이 쓰고 있다.

社會學的으로 현재 우리는 갖고 있는 3개의 '혈맥'은 '산업화 혈맥' '민주화 혈맥' 그리고 '사회주의 혈맥'이다. 역사적으로는 사회주의 혈맥이 가장 오래 되고, 그 다음이 민주화 혈맥, 그리고 산업화 혈맥의 순이다. 시기상으로는 사회주의 혈맥은 1920년대에 시작되고, 민주화 혈맥은 1950년대, 그리고 산업화 혈맥은 1960년대 이후에 와서 형성된다. 이 3개의 혈맥은 그 혈맥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시점과 시대적 상황의 차이 만큼 그들이 갖는 사회적 기대와 가치가 다르고, 사회적 요구와 주장이 대립되고, 그리고 사고방식 행위유형에 크나 큰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세대가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고, 그 바뀔이 비교할 수 없이 가파르게 진행돼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없이 치르면서도 달라짐이 없다. 권위주의시대라고 하는 80년대 이전과 소위 민주화시대라고 하는 90년대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라. 그 90년대와 세계화시대라고 하는 2000년대를 또 한번 비교해 보라. 우리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세 혈맥의 차이는 마치 역사와 사회변동에 아랑곳없이 계속되는 생물학적 '차이의 지속'을 상징해도 좋을 만큼 확연하지 않은가. 오히려 혈맥 간 차이는 더 커지고

특별기고

宋復 연세대 명예교수

다음은 지난 달 14일 '광화문 문화포럼'(회장 南時旭)에서 宋復 연세대 명예교수가 강연한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의 위기' 내용이다. 본보는 '宋復 교수의 동의를 얻어 강연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투쟁은 더 격렬해지지 않는가.

한국 민주주의와 그 정체성은 이 3개의 혈맥을 면밀히 짚어 봄으로써 그 혼돈과 위기, 그 안정과 지속을 내다볼 수 있다. 더구나 '보수'와 '진보'로 잘못 유형화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세력간 구분도 이 세 개를 분석함으로써만이 그같은 유형화가 얼마나 허구이며 왜곡된 것인가도 알 수 있다.

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둘째로 '민주화 혈맥'은 50년대는 자유당 정권에, 60년 이후 80년대 후반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절규하고 성취하려고 했던 세력들이다. 50년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었고, 60년대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어정쩡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판치는 '실패의 나라'이기도 했고, 산업화도 민주화도 함께 달성한 '성공의 나라'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역사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마치 일본의 '국화와 칼'처럼 한편으로는 이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역시'라는 반대 성향이 늘 있었다. 따라서 민주화 혈맥은 일부만 보수·우파였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지향하면서, 사실상 지금은 명맥이 꺼져가는 상태다. 그 명맥의 단절 내지 소멸은 지난 10년 내내 피치를 올렸다. 마침내 한국 정치 사상 보기 드문 압승을 상대 정당에 안겨줌으로써 민주화 혈맥도 지금 거의 최후를 맞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혈맥'은 일제시대인 192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운동이 그 시기에 이미 전국적으로 전파되었고, 이 실천운동의 전위조직인 공산당이 결성된 것도 1925년이였다. 일제가 이 사회주의 전위조직을 검거한 후 밝힌 이들의 출신지별 신원을 보면(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발표 1931년) 전라도와 경상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검거자 525명중 전라도가 141명으로 27%, 경상도가 113명으로 22%로 거의 50%에 달하고, 나머지는 평안도 31명 경성 29명 충청도 27명, 그보다 좀 많은 숫자로는 함경도 77명이 고작이었다. 그 이후 2차 검거에서도 호남과 영남의 숫자는 줄어들기는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들의 사상적 전통과 맥이라는 것이다. 영남의 경우 6·25 당시 북한군의 유일한 비점령 지구로서, 전쟁을 통해 남로당을 포함 사회주의자가 거의 소탕되고, 거기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수혜와 정치적 수권을 통해 사회주의 혈맥이 형성되는 입지가 거의 완전 상실됐다. 그에 비해 호남은 영남과는 정반대로 북한군 점령지역으로서 사상적 연계의 영역이 넓혀졌고, 또 영남과는 달리 경제적 정치적 수혜와 수권에서 소외되고, 아울러 피해가 컸던 광주사태까지 겹침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일제시대 이래의 사회주의 전통과 그 맥이 강하게 이어지고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民主化 혈맥과 연계한 社會주의 혈맥 대한민국 正統性 부인 政權타도 앞장

'사회주의 혈맥'

첫째로 '산업화 혈맥'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산업화를 성공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국가발전의 주역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무역대국으로 만들었다는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명실공히 지난 40년간 한국 사회의 주류적 지위를 형성해 온 세력들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생겨난 140개 신생국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이다. 더구나 지난 48년 8월 15일 이후의 60년사는 북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건국혁명'의 역사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들 세력을 굳이 '산업화 혈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가치의 대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다. 그들을 보수라고 하고 또 우

대한 갈망은 대통령을 국민이 손수 선출하는 '직접적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항집단들이 '혈맥'처럼 서로 피가 흐르고 의기가 합쳐져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 혈맥'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민주화 혈맥의 특징은 '산업화 혈맥'과 달리, 오랜 투쟁경력과 강인한 투쟁성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나, 정권 장악 후의 정책 실현 과정에서 다 같이 주도적이 못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모두 '하이브리드 정권'(hybrid regime)이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은 '반(半)민주화 혈맥' '반(半)산업화 혈맥'의 혼합정권이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반민주화 혈맥' '반사회주의 혈맥'의 혼합정권이었다는 점에서 정권 내에서 독립적이지도 못했고 주도적이지도 못했다.

左派제압-포용으로 체제위기 벗어나야

<1면에서 이어집니다>

대학사회에서도 사회주의의 맥은 늘 뻗어 있었고, 사회주의 열정은 간단없이 불타고 있었다. 우리는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이 그 문학적 가치와 수준에 아랑곳없이 그렇게 많이 읽히고, 리영희 교수의 ‘우상과 이성’이 학자로서의 양심과 양식에 너무나 동떨어졌어도 그 시대의 독자를 휘어잡았던 이유를 역시 이에서 보아야 한다. 아직도 잔존해 있는 NL계니 PD계니 하는 것, 대학의 한 종련이라는 것, 이는 모두 80년대 이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연원을 찾아 올라가면 일제시대의 그것에 닿는다. 초·중·고교의 교사노동자 그룹인 전교조, 386운동권,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격렬히 반대하는 범민련과 미군 철수의 범대위, 양심수 석방의 공대위 그리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만들어진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광화문 촛불시위 주도의 국민연대, 이들은 모두 이념대결의 전위대들로 그 뿌리는 당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모두 일제시대의 그 사회주의의 맥에 박혀 있다.

더구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6·15학원 6·15TV 도서출판 6·15, 그 위에 한국민권연구소 등 수많은 부설단체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부에서 공익사업 단체로 지정되어서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6,000만원의 정부지원금도 받았다. 작년 10월 검찰이 이들을 수사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들은 모두 주사파들로,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미제가 제 아무리 날뛸다 하여도/ 우리의 궤전에는 만세소리 들린다”라는 길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노래와 충성서약서를 제작하고, “김정일 장군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자”는 정풍(整風)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또한 그들이 의식하던 못하던 그들 행동의 외연은 일제시대의 그 사상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내포는 그 사상적 지층에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같은 사회주의사상 전통이 한 ‘혈맥’으로 굳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혈맥과 연계하면서다. 자의든 타의든 민주화 세력은 그들 운동의 우군으로 이들 사회주의 세력과 한 덩어리가 됐고, 이들 사회주의 세력은 민주화 세력에 기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 세력 확장의 도구로 민주화 세력을 이용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선 누가 민주화 세력이고 누가 사회주의 세력인지 구분이 갈 수 없도록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김대중 ‘하이브리드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분리돼 그들만으로 충분한 ‘혈맥’을 형성하고 한 ‘혈맥’으로서 존재가치를 드러냈다.

민주화 혈맥이 완전히 쇠퇴한 지금 이 사회주의 혈맥은 70~80년대 기운 찼던 민주화 혈맥의 그 위치로 부상해서 민주화 혈맥을 제치고 산업화 혈맥

과 격렬히 싸우고 있다. 쇠고기 파동 이후 야당인 민주당이 조계사에 숨어 있던 촛불시위의 주도자들(사회주의 혈맥의 전위대나 다름 없는 실천연대)을 찾아가서 국회 등원에 대한 이해를 읊소한 것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화 혈맥과 사회주의 혈맥의 위치가 이미 전도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해 주는 사례다.

얼마 전 한 민주당 의원이 말한 ‘매국노’ 발언도 이같은 위치전도의 한 표시라 할 수 있다. 북한동포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북으로 고무풍선을 띄워 보내는 탈북연대 등을 가리켜 ‘매국노’라고 한 것을 우리 국민이면 누구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북쪽 동포 인권운동에 정말 ‘매국노’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매국노’는 일제에 빌붙어서 나라를 판 사람들이다. 인권운동가가 그 매국노와 같은 위치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인가. 인식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같은 용어를 쉽게 쓸 수 있는가. 이 또한 사회주의 혈맥이 이미 그들 당내에 위치를 굳혔다는 증좌일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이래의 오랜 사상적 전통

産業化 혈맥 쌓아온 경험살려 세계화 지향 점진-실용-도덕주의로 内部의 적 다스릴때

과, 줄기차게 민주화운동을 벌인 민주화 혈맥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 — 이 세 개의 중첩적 보상 위에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혈맥은 이제 지난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하이브리드 정권’을 거치면서 다져지고 드세어진 힘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고 있다. 물론 산업화 혈맥을 타도하기 위해서다. 지난 1년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돌아 보라, 그것은 얼마나 많은 ‘해방구’가 등장 했느냐에서 알 수 있다. 촛불시위 때 광화문이 몇 개월 동안이나 해방구가 되었던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방송이 해방구가 되고, 드디어는 의사당이 해방구가 되지 않았는가. 심지어 국무총리 산하의 한 위원회가 대법원 확정 판결도 거부해버리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어정쩡했던 민주화 혈맥과 달리 그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정체성을 거부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분단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을 산업화 대통령으로 생각지 않고 독재자로 폄하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성공’은 그들이 가장 경악하면서 질시하고 가장 외면하고 싶으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이다. 질시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이들 사회주의 혈맥은 친북을 넘어 종북으로 나아갈 것이고, 반미와 한

미 FTA, 세계화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대한민국 흠집 내기와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이명박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드는데 갖은 획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해방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화 혈맥이 시들고 사회주의 혈맥이 한층 공고화된 지금, 그 위기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공고화된 사회주의 혈맥과 대치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보수 對 좌파의 대결이다. 보수 대 진보 혹은 보수대 혁신은 가치를 공유하는 정파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실정법체계, 대한민국이 토대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같이 하고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을 말할 때 보수 대 진보다.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 프랑스의 공화파와 사회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세력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력간에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보수 대 좌파의 대결이다. 사회주의 혈맥이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의 주류가 되어 있는 한 오늘의 정치상황은 보수 대 좌파의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산업화 혈맥이 ‘혈맥’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산업화 혈맥이 원래 보수주의가 갖는 보수주의 원칙으로 철저히 귀환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생성할 때부터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경험주의다. 경험은 머리 속에서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해낸 지식·지식과는 다르다. 경험주의는 실제로 경험해서 얻어낸 사실과 지식,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쌓은 지혜와 경륜을 가장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시기다. “지자선모 불여당시”(智者善謀 不如當時)라는 표어가 경험주의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지식으로 좋은 계획을 짜내도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의미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다,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다.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 제한제폐지 미디어법은 이 시기에 가장 맞는, 가장 요구되는 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 보수주의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된다.

점진주의다.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차이는 전자는 점진적, 후자는 급진적이라는 점이다. 보수주의자는 절대로 서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의 표어는 slow and steady다. 느리게 서서히 하면서 확실히 하고 그리고 시기에 꼭 맞추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의 경험법칙은 ‘서둘면 진다’이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가 주류이고, 보수주의자에게 이긴 사회주의자는 없다. 설혹 먼저 이겨도 나중에는 진다. 느릿느릿하면서 확실히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갖가지 좌파정책의 뜻을 하루아침에 다 뺏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도 의장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해서, 또 다수의 힘으로 해서 그 많은 법안을 단번에 다 통과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점진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소수라고 힘이 적은 것이 아니다. 소수일수록 사회주의 좌파는 사생결단하는 강성 강기가 있다. 그 강성 강기를 점진적 전략으로 힘을 서서히 빼내야 한다. 그것이 보수주의자들의 경험이다.

실용주의다. 투입(input)보다 산출(output)이 많은 것이 실용주의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산출이 적으면 실현성이 없다. 설혹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생산성이 높으면 실질이 있다. 실용주의는 실질적이고 생산성이다. 하지만 그것 만이 실용주의는 아

니다. 편안함과 편리함이라는 가시적인 생활효과가 있어야 한다. 역시 이것 만이 실용주의는 아니다. 그런 가시적인 물질주의를 넘어 고객의 정신적 심리적 만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화다. 문화는 꿈과 낭만과 즐거움이다. 실용주의는 이들 모두이다. 물질과 정신에 함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4대강 정비는 실용주의다. 그러나 운하는 실용적이 되기 어렵다. 4대강은 이미 있는 자연이고 그 정비는 ‘친자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덕주의다. 우리에게 가장 잘못된 인식이 있다. 보수주의자는 탐욕적이고, 사회주의자는 청렴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의 그릇된 선동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든 가 보라. 부패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는가. 대다수 보수주의자들을 보라. 탐욕적인 사람이 있는가.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과 성실이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에서 오는 도덕성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제도다.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에 비하면 훨씬 투명하고 바르다. 우리 나라 보수주의자들도 대다수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다. 소수 몇몇 사람 때문에 모두가 그런 것으로 착각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자기 보전책이 부족해서이다. 다른 나라 보수주의자처럼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늘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의사당 暴力은 憲政파괴 기도다



金 哲
· 본회 편집위원
· 국민대 초빙교수

“의사당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一過性으로 간주하고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의회정치의 연조로 봐서, 이제 세련될 때가 되었다는 당연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또 의회의 의사 결정 방법은 표결이며 소수파의 의사 진행 방해 혹은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한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에 간단히 접겠다.

필자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의 폭력과 오늘의 폭력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이라고 하나 이 꼴이 된 것도 제법 오래 됐다. 언제부터였는 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 설명하지 않겠다. 과거의 폭력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다시 말해 폭력수단을 통해 강행하는 측이나, 저지하는 측이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때의 諸政파나 그 지지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세력이었다.

상대 의원의 귀를 물고, 맥살 잡고, 주먹질 하고, 분노를 뿌리고, 소방호스로 쏘아대고, 국기봉을 들고 돌격하고, 단상을 점거하고, 회의를 옮기고, 손뼉으로 사회봉을 대신하고 날치기를 했지만 쌍방 어느 쪽도 대한민국을 의심하거나 훼손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단순 폭력에서 헌정파괴 폭력으로 “혁명적 진화”를 한 것이다. 이유가 있다. 과거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新국민, 舊국민 “두개의 국민”이 같은 하늘 아래, 그것도 그야말로 “위선적”으로 同居하고 있다. 위선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쪽은 정권을 잡고도 세삼물정에 “정치적 입포”같은 세력(이른바 보수)과, 다른 한쪽은 “전복”을 꿈꾸면서도(이른바 진보) 그 속내를 적당히 은폐하는 세력이 동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류의 폭력은 과거와 달리 “단순 폭력”이 아니라 헌정파괴를 겨냥하는 “反體制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복세력은 제도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지지자인 新국민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획 조종세력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해머를 휘두르고 격투기를 소잉하면서도 사실상 미안해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전략적 목표가 다른데 전술적 탈법을 미안해할 리가 없다. 미안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쪽이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기성체제)의 규칙으로 게임을 하지 말라”는 말콤 엑스(흑인 폭

체제전복 겨냥 ‘新國民’의 전략적 행위 여권내부도 오염… 준엄한 채찍질 필요

력운동가)의 제자들이 그들이다. 언론의 태도도 두 국민과 유관하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이른바 보수언론마저도 그저 찔끔찔끔 찌르고, 전혀 집중력도 지속성도 없이 “일개 사건”처럼 다루고 지나가고 있다. 이른바 진보언론은 폭력의 원인제공자는 여당이라고 겨냥하고 있다. 폭력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 각각 헌정무효 사태라는 엄중한 인식이 철저하게 결여됐거나, 폭력을 제도와 倒置시켰다. 명백히 언론 내부에도 新국민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상황은 법적 대응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모든 對症的 요법은 일체 무효라는 얘기다. 무슨 폭력방지법이니, 주민소환제니, 단상점거처벌이니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상대는 말콤 엑스의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억압의 토대가 되는 규칙을 만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칙에 의거해서 투쟁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브라질의 혁명가 카를로스 마리셀라의 “정치상황을 군사적 상황으로 발

전시킨다”는 이론과도 장기적으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대중은 유리되고, 유리된 대중은 혁명세력에 동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군사적 상황이란 문자 그대로 군사적이기 보다는 극단적인 투쟁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이른바 보수의 무사안일과 무능 그리고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보수는 예를 들어 “美國” 빼고는 할 얘기가 없는 이념의 불모지대였다.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을 기획 조종한 세력은 벌써부터 안토니오 그람 씨의 “陣地戰”에서부터 레닌의 “機動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했다. 촛불을 비롯한 정치적 시민운동이 다 그런 것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의사당 폭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新국민의 실험은 실패했다. 2007년에 反轉이 시작됐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동안에 누구의 자랑처럼 이 사회의 중추구조는 상당부분 바뀌었다. 이명박 정권은 이 엄청난 現實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지금 여당은 정파적 正體性이라곤 눈꼽 만큼도 없다. 여당 안에도 新국민이 주력이기 때문이다. 新국민은 과거부터 소속에 관계없이 긴밀하고도 내밀하게 상호교류를 했다. 정부나 국회에서 기밀서류 보안사고가 빈발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무너만 집권 세력이다. 관료조직이 왜 말을 안 듣는지 이명박 정권은 잘 모르고 있다. 그 곳에도 新국민이 포진한지 오래기 때문이다.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레임덕은 집권 2년 반쯤이면 시작한다. 이렇게 가면 이명박 정권의 실험도 실패할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권은 實用主義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實用은 “江山的 변화”를 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實用은 綱領이 아니라 條目이기 때문이다. 치명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통치는 상공회의소 운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강령으로 큰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력을 조직화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옛날 아버지들이 구사한 “목침 위의 회초리”와 같은 것이다. 준엄하고 때로는 추상같아야 한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국민을 이민 보낼 수는 없다. 국민은 숙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思想이 아니라 “생각”의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강령이 성공적으로 설득되면 다시 하나의 국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의사당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필자]

〈2면에서 이어집니다〉

둘째로 보수주의자 산업화 혈맥은 좌파·사회주의 혈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그 하나는 체제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다. 아무리 대한민국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그들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할 수는 없다. 곳곳에 해방구를 만들어도 그 해방구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과는 다르다. 외부의 적은 내부에 힘이

있는 한 물리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내부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없애면 또 생겨난다. 생길 때마다 없애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소위 말하는 체제유지비용 내지 사회 통제비용(social control cost)의 급격한 증가다. 따라서 체제전복 체제파괴의 위협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용납하는 것이 더 체제유지적이 된다.

다음 하나는 체제지속의 경고를 높이기 위해서다.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적은 나를 경고한다. 적이 있

으므로 나는 늘 경계한다. 적이 있으므로 나는 방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키운다. 마르크스주의가 있어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만큼 자신을 경계하고 경쟁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북한이 있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건국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들의 끊임이 없는 위협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성취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공업 건설과 산업화 성공은 북의 김일성과 남의 민주화 세력의 도발 도전이 있어 더욱 가능했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유종원(柳宗元)의 글에 “적존멸화 적거초과”(敵存滅禍 敵去招過)라는 말이 있다. 적이 있음으로써 망하는 화를 없앨 수 있고, 적이 사라짐으로써 망하는 과오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세월이 가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사회주의 혈맥이며, 민주화 혈맥이며, 시들지 말고 계속 생생하라. 그래야 보수주의자가 경계를 낮추지 않고, 그래야 또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발전한다. [필자]

빠른 뉴스, 알찬 정보 **YTN**

YTN은 **차가워집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고 싶은 뉴스를 시원하게 들려드립니다.
솔직하고 속 시원한 뉴스,
YTN에서 만나보십시오.

뉴스창 앵커
(월~금 19:00~20:40)

함형건



YTN은 **뜨거워집니다!**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뉴스를 전합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닌 확실하게 다 알려드리는 뉴스,
YTN에서 만나보십시오.

www.ytn.co.kr

뉴스창 앵커
(월~금 19:00~20:40)

김선영



위협받는 民主主義 진정한 고민 안보여

1969년 내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일 때 타임지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미라이'(My Lai) 학살사건은 나를 경악시켰고 경탄케 했다. 경악한 것은 물론 그 사건의 잔혹성과 반인류적, 반인륜적 죄악 때문이고, 경탄한 것은 미국인이 타국민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를 그토록 상세하고 가감없이 전 세계에 알리는 미국 언론의 용기와 소신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 나라 언론이었다면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저지른 그런 참혹한, 어떤 변명이나 구실이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보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언론상황은 물론 1960년대 말까지도 좁은 의미의 국익에 위배되는 보도는 정부의 방침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정서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더구나 1969년은 제3공화국이 이미 막강한 독재체제가 되어서, 유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였으므로 언론이 한국인의 비행을 세계에 폭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 때, 나는 '국익'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언론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익'을 도모하고 '국익'에 봉사하는 것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다. 당시 미라이 현장에서 더 이상의 학살을 막아보려다가 실패하고 그 사건

大韓言論 '09主題 언론과 國益

특별기고



徐之文
· 고려대학교수
· 영국문학 전공

을 당국에 보고했던 3명의 군인들은 미국인들에게서 여러 형태의 위협과 박해를 당했으므로 언론도 보도를 함에 있어서 상당 정도 대중의 반감과 모종의 불이익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죄상을 온 세계에 공표했다.

나는 그것이 곧 미국의 진정한 국익에 봉사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상세한 탐사보도를 할 만큼 취재망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미국의 죄악에 경악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언론의 정의감과 용기, 그리고 그런 언론을 수용하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경탄한 사람이 나 하나 뿐은 아니었으리라고 본다. 미국인들도 비록 그런 언론보도가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마이너스 요인보다 그로 인해 미국의 정의가 강화되는 플러스 요인이 많음을 인정했을 것이다.

피상적인 '국익'을 추월한 추적과 탐사보도는 미국 언론의 전통으로 근자에 관타나모

최근보도 내편 감싸기-상대 비난만 판쳐

나 그런 범죄가 언제까지 은폐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미국의 언론이 먼저 앞장서서 낱낱이 폭로하고 정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 악화를 어느 정도는 상쇄

수용소에서 일어난 이라크인 포로 학대 사건 보도에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미국 언론의 용기와 신념이 언론사상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1866년에 있었던 에어 총독(Governor Edward Eyre)의 고발을 둘러싼 논쟁과 1894년부터 10년 이상 프랑스를 들끓게 했던 드레이푸스 사건(The Dreyfus Affair)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파헤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이라는 매체가 없었으면 그런 큰 반향과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사회적 쟁점들이었다. 드레이푸스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없지만 에어 총독 고발사건은 다시 돌아볼만 하지 않을까 싶다.

1865년에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자메이카에서 일어났던 원주민 폭동을 총독이었던 에어가 무자비하게 진압한 일이 알려져 총독은 퇴임했지만 진상조사는 매우 피상적이었고 총독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 이에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해서 존 브라이

트, 찰스 다윈, 토머스 헉슬리 등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자메이카 위원회'를 결성해서 에어 총독의 형사책임을 묻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에 맞서 토머스 칼라일을 위시한 존 러스킨, 찰스 디킨스, 알프레드 테니스 등 저명 사상가, 문인들이 에어 총독을 옹호하는 '에어 총독 방어위원회'를 결성해서 2년 동안이나 대립하면서 격렬한 논쟁을 야기했다.

물론 대다수 영국인들은 원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었고 영국 총독이 원주민폭동(사실 처음의 발단은 소규모 저항이었는데)을 진압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그 논쟁을 통해서 일반국민도 영국의 식민지 통치 방식과 통치자의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메이카위원회는 에어 총독을 법정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훗날 자서전에서 위원회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영국의 양심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문명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었다고 술회했다.

이런 사례들은 언론이 자국의 수치를 감추고 감싸고 변호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국익에 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이 자국민과 타국민 사이에 내편과 네편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내편의 과오는 은폐하며 옹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과 비난을 일삼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정의는 점차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은 사사건건 자기가 편드는 진영을 두둔하기에 급급하고 나라의 민주질서가 흔들리고 정의가 망가지는 것에는 무관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다. 근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촛불시위를 둘러싼 논란에서, 그리고 국회 불법 점거와 법안상정의 폭력저지 등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에는 내편 감싸기와 상대방 비난하기만 있고 우리의 위협받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는 것 같다. 언론이 정의의 파수꾼 되기를 포기하면 국민은 옳고 그름의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대한민국호는 격랑 속의 조각배처럼 흔들리게 된다. [4]

미디어法 개정촉구 지식인 선언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명의 지식인들은 2월 5일 오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채택한다. 이들은 이 선언문에서 미디어법 개정은 지난 신군부의 방송장악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첫 걸음이며 매체융합의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은 선언문의 요약이다.

최근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미디어법의 개정은 미디어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방향이 옳은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논의는 정파성, 나아가 이데올로기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지상파 방송체제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이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의 우려가 높은 체제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과연 그 이후 방송은 역대 정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그 국가권력의 통제와 지상파 방송에 의한 여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이 보인 권력과 이념에 대한 편파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매체융합시대, 디지털시대가 본격화되고 투자가 활성화 되면 2만 1,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2조 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 그 정확성에 의문이 없지 않고 언론을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취업난으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을 고무하고 그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실한 논의와 민주적인 결정은 오간데 없고, 해머와 전기톱, '공중부양'의 폭력이 국회 의사당을 유린했다.

이 모든 것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성심을 다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견을 경청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언론장악'이라는 선행이 세를 얻고 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과연 그대들이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져온 공당이었는가? 그대들은 집권시절 '아무리 느슨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편파적'인 방송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유지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운가?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에게 촉구한다. 노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언론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는 언론인의 양식에 비추어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됨이 절실하다. 이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다고 믿는다. [4]

폭력국회 국제망신 타임誌 커버스토리로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가 작년 12월 빚어진 한국의 '난장판 국회'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타임은 지난 1월 12일자 아시아판(사진)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다루면서 한국의 여야 의원끼리 뒤엉킨채 목을 조르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태국의 시위대가 절규하는 모습 등을 표지 사진으로 실었다. 타임은 '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적인가'라는 부제의 기사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은 요원해 보인다"고 꼬집으며 한국에선 "민주적 정권 교체로 삶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이 더 많으며, 과거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물대포를 쏘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사진을 싣기도 했다. [4]

미네르바 소동… 부추기기와 끌어내리기

방 송시평

“주식시장이 폭락해 연말에는 코스피 지수가 500선까지 밀릴 것이다” “강남 집값은 반토막 날 것이다”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할 것이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이 지난해 중반 이후 인터넷을 타고 네티즌들에게 급속히 퍼져 나갔다. 자칭 ‘미네르바’. 그가 이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된 사람중 하나는 바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기고를 통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 모씨였을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 박씨는 검찰 추산 280여건의 인터넷 기고문을 통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전문가로 평가받았고, 그의 주장이 널리 전파되면서 경제당국자들의 신뢰도는 반대로 급속히 추락했다. 그가 지난 달 구속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되면서 이제 그는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각 방송사들도 그의 구속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을 빚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냐,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익에 위해를 가했느냐를 놓고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갑론을박했다.

토론프로그램 통해 갑론을박 일부뉴스의 옹호인상 못마땅

각사의 토론 프로그램 EBS토론(1월 17일 밤 10시 10분 방송)이나, KBS 일요진단(1월 18일 8시10분 방송)은 비교적 담담하고 자세하게 미네르바의 구속이 정당한가에 대한 전말을 풀이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했다. 미네르바 구속이 정당하다는 측은 그의 기고문중 일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익을 해쳤다고 보고 그의 구속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모욕죄의 도입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구속이 부당하다는 쪽은 박씨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터넷모욕죄의 도입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따라서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에 따르는 책임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 한쪽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네티즌들의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반박하는 쪽은 이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때가 늦었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어떤 토론 프로도 칼로 무를 자르듯이 단순명쾌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논란이 뜨겁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이제 박 모씨의 유무죄 여부는 법원



신 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의 심판에 맡겨졌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인터넷상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는 프로가 없었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그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뉴스 프로의 진행자가 마치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듯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방송들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악플들로 인해 어떤 후유증이 벌어지고 있는지 탤런트 최진실의 자살 이후처럼 심도있게 짚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월 9일 임시국회 개회 기간중 민주당 의원 9명이 부부동반으로 방콕으로 골프여행을 갔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고 여기서는 KBS의 특종을 둘러싸고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짚고 넘어 갔으면 한다. 제보자가 이들 의원들의 일정을 입수한뒤 어느 회사에 제보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MBC를 좋아했던 이 제보자는 최근의 MBC

보도행태에 불만이 많았던가 보다. MBC에 주면 민주당을 옹호하는 MBC가 이를 묵살해버릴 것 같았다고 판단, KBS에 제보했다는 것이 이 소문의 전말이다.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 MBC를 사랑하고 아끼는 선배로서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소문이 사실이라면 MBC는 그 동안의 어떠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공영방송인가? 입으로만 공영방송이라고 외치면서 시청자를 외면하지는 않았던가?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면서 편파적인 적은 없었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 편을 든 적은 없었던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추려내고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세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고 시청자에게 다가갈 때 만이 MBC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KBS 기자와 PD 3명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놓고 또 한 차례 방송가에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KBS PD 협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작거부로 맞서기로 했다 한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KBS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중대함을 의미한다. 회사측은 지난해 정연주 사장 해임 이

신문시평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에 그럴 듯한 글을 올려 히트 수를 높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아이다 명 ‘미네르바’가 그랬다. 더구나 30대 초반의 무직 자라면 경기불황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불만이 보통 이상으로 고조되어 있을 터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불안심리가 정점을 치닫고 있을 때 ‘못 먹는 감 찢어나 보자’는 심경으로 어썩잖은 경제 낱두리를 작성, 엔터 키를 눌렀다.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히트 수 문제가 아니었다. 누리꾼들의 댓글이 그의 어제와 오늘을 갈라 놓았다. 그는 여기 저기서 굶어 모은 단편 정보로 좀 더 그럴 듯한 논리를 퍼나갔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은 물론 작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신비성이 달라붙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춰야 했다.

눈치 빠른 신문이 이러한 사태를 그냥 넘길 리 없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면서 한술 더 떠 그를 ‘논객’으로 격상시켰다. ‘해박한 경제지식’ ‘거침없는 분석’이라고 부추기면서 실존 인물 찾기에 나섰다. 전직 관료, 미국 유학을 다녀 온 경제학 교수, 제도권에 있



최 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도 그랬다. 세태의 인심에 편승, 덩달아 환상을 쫓다가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뒤에야 ‘사회적 병리현상의 단면’임을 특집으로 다뤘었다.

이번 ‘미네르바’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예전의 태도와 차이가 없다. 조금만 눈여겨 봤더라면 허구일 확신이 51% 이상인 사안을 포퓰리즘에 뒤흔들리다 또 ‘사회적 환경’을 범인(犯人)으로 몰고 가는 특집경쟁을 벌인 것이다. 그 마저도 누리꾼들의 단편적인 판단을 기본 값으로 해서다.

한 치 앞을 분간기 어려운 경제흐름 속에서 천학비재의 솜씨로나마 이것 저것 넘겨짚었던 ‘미네르바’는 분명 신비로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신비성을 확대 재해석하여 부추긴 것은 신문 지면이었다. 그 지면이 이제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단면이라며 희생양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누리꾼들이 야단법석을 떨 때 그의 글을 조금만 주의해서 분석했다면 금방 허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논리의 빈약과 비약은 물론 한 경제전문가의 ‘경제 기초지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처럼

‘경제 대통령’으로 치켜세우다 신상 밝혀지자 ‘사회병리’ 발뺌

는 경제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추적에 나섰다. 50대의 미 스탠퍼드대학 경제학부 수료자로 포위망을 좁히기도 했다. 어느 신문은 점찍은 예상 인물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는 촌극을 벌였다.

‘미네르바’는 어느덧 ‘경제 대통령’의 지위에 올라 앉았다. 그가 주식을 팔라고 하면 팔았고, 달러를 사놓으려면 사놓았으며, 현금을 확보하려면 그에 따랐다. 경기가 내리막 길인 상황에서 그의 예측은 꽤(?) 적중했고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도 제법 짚어내는 듯 했으나 새해 들어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측면의 충격이 세상을 뒤덮었다.

언론의 인심도 세상의 인심과 다를 바 없었다. 그의 미천한 학력과 연소한 나이와 무직 상태인 위상을 여지없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비하하면서 속보경쟁을 벌였다. 신문 지면은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황우석씨의 논문조작 사건 때

상계를 벗어난 문장이었다. 단순한 경제정보의 짜깁기 수준을 해박한 경제지식으로 격상시킨 무덤이 안타깝다. 더욱이 그의 문체에서는 ‘기준에 아파트 값’ ‘필수 생필품’ ‘지금 현재’ 등 사용단어와 기초문법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임이 여실히 드러나는데도 이를 간파치 못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

메이저라고 자칭하는 어느 지면은 박씨라는 실명을 향해 ‘지적 정직성과 표현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하는 한편 ‘어썩슨 사기’와 ‘바보들의 행진’에 끼어들었다가 망신당한 정치권을 노골적으로 홍보했다.

부추기고 빠지기의 장본인인 신문 지면은 과연 책임의식과 반성의 사각지대인 것인가. 현 시각에는 또 어떤 사안이 남모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가 발각 뒤집힌 뒤에야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범인의 실체가 드러날 것인가. [필자주]

후 이병순 사장 추천과정에서 이들 KBS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이 이사회 개최를 방해했기 때문에 징계를 단행했으며 이에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심을 요구하라고 한다. 회사측의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장을 추천하고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개최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것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채 제작거부에 나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사원들의 임무는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징계사안을 놓고 제작거부를 단행한다면 시청자들을 불모로한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주]

미네르바 - 言論의 자유 말할 자격 없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왜 쓰는지 목적이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남에게 내 생각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쓰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나의 지금 생각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써 두는 경우가 있다. 나의 메모장이나 일기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면 쓴 사람이 나는 누구인데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글을 쓰는 자신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힐때 그는 자기 이름과 직업과 나이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힌다.

이 같이 평론이나 컬럼은 기명(記名)이 원칙이며 이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칼럼이나 평론에 대해 반론을 하려는 사람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주장에 나도 뜻이 같거나 아니면 당신얘기가 틀렸다고 말한다. 기명 평론이나 칼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면 그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다.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남의 생각에 뛰어들어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세상 경우에 비춰서도 말이 안될뿐 아니라 무책임하며 예의없는 짓이다. 그러므로 그같은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할뿐 아니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무시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밝히지 않고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에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의도

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이나 글이 막대한 '독자'(방문자)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포털에 게재되어 일반에 공개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포털에 게재된 글은 포털의 이름과 함께 공인성이 위장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포털에 올려놓은 글을 언론의 한 장르로 평가하기 십상이다. 그 글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

누가 포털에 올려진 글을 언론으로 본다는 말이나고 반론할지 모르나 미네르바 박씨 구속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언



노 상 국

- 본회 회우
- 전 전자신문 주필
- 오라뉴스 주필

그러나 포털은 아니다. 누차 지적했듯이 포털은 언론이 아니다. 어느 포털도 공익을 거론한 일이 없다. 출발이 그와 같은데 포털에게 공익을 강요해봤자 쇠 귀에 경읽기다.

미네르바 사건도 알고 보면 이같은 세태가 빚어낸 한토막 난센스다. 자기를

에 거창하게 언론의 자유를 갖다붙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한 지식경제사회, 그 가운데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활용률을 갖는 나라 대한민국, 한 전문서적의 서문중 일부이다. 실체가 감춰진 무명의 미네르바가 이와같은 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흔들 수 있게 되어있는 현재의 상황이 문제다.

우리는 방송에서 무슨 소린지 잘 모를 잡음을 자주 듣는다. 음성변조로 내보내는 멘트다. 남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비행을 고발하는 경우 자주 접하는 일이다. 심지어 억울하다는 호소도 변조음으로 방출한다. 무책임의 극치다. 변조음성을 사실이라고 믿기도 어려웠던데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고 음성조차 변조로 전달하는 내용을 믿을 사람이 없는데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

언론은 정확성을 제일의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확인하는 몇차례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오보를 언론의 가장 큰 과오로 생각하며 오보경력은 그 기자의 이름 앞뒤에 붙어 다닌다.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일 때는 취재부서에서 배제된다.

신속·정확·공정이라는 언론의 사명과 이를 저해하는 모든 요소에 대항하며 언론 고유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성한 말들이 엉뚱한 곳에서 남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AP]

실체 감춘 무책임한 글 전파하는 포털 身分 밝혔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

론이라는 꼬리가 달려 있음은 이를 입증한다.

앞서 지적한 거품현상을 단속하고 막아 보려는 시도에 대해 왜 '언론자유'가 거명되는지 알 수 없다. 무책임한 글을 못쓰게 하자고 하는 것은 언론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다. 그런데 책임있는 글을 쓰자는 주장을 언론의 자유침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언론은 최소한

밝히고 글을 썼다면 미네르바의 적중성은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책임을 생각했다면 말을 많이 아꼈을 것이며 자기분수 이상의 예측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냥 해본 소리를 처벌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그것은 법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여기

본회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2009년도 예산안 · 사업계획 승인

대한언론인회 제 23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00여명의 회우(위임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총회에서 조창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우들의 복지를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편 결과 회우들로부터 잘 했다는 평을 듣기도 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남은 1년 동안도 회우들이 흡족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회우들도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히 지난해부터 대한언론회보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힘써 우리 회보가 각계로부터 단순히 친목단체의 회보로서가 아니라 정론지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면서 올해 더한층 회보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광고 수입도 늘려 취약한 재정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총회는 이어 윤익한 감사의 감사보고와 2008년도 결산, 올 2009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한 승인 순으로 진행됐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23차 정기총회. (심재복 회우 찍음)

윤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2008년도에 집행부가 긴축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회우 복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회우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회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건환 상임이사는 2009년도 회우의 건강강좌와 진료 사업 등을 계속하고 특히 한 해 두 번 실시한 체력단련과 문화 유적탐방 사업을 한 차례씩 늘려 상하반기 두 차례씩 모두 네

차례 실시하는 등 친목과 복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데 2억1,100만여원의 예산안을 상정해 승인받았다.

총회는 2008년도 2억1,100만원의 결산년도 승인했다.

총회는 시작에 앞서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언론계 선배 특히 지난 해 유명을 달리한 6명의 회우 등에 대한 묵념을 올렸고 총회가 끝난 뒤에는 간단한 다과를 들면서 새해 덕담을 나눴다. [AP]

89세 老 女記者 백악관 신화

미국의 백악관 최장수 출입기자 기록을 갖고 있는 여성 언론인 헬렌 토머스(89·사진) 기자가 지난 1월 22일 10번째 미국 대통령 취재를 했다.

토머스 기자는 이 날 로버트 기브스 신임 백악관 대변인의 데뷔 브리핑에 맨 앞줄 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지정석'에 앉아 견재를 과시했으며, 브리핑룸과 언론사 부스를 깜짝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첫 브리핑에서 토머스 기자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과 언론의 허니문은 하루 정도 불과할 것이며 이것이 언론의 속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머스 기자는 1942년 대학을 졸업, 워싱턴 데일리 뉴스에 입사하면서 언론계에 투신했으며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백악관 취재를 시작했다.

48년간의 백악관 출입으로 그의 브리핑 룸 내 유일한 지정석 밑에는 '헬렌 토머스'라는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 [AP]



로버트 기브스 신임 백악관 대변인(오른쪽)이 22일 헬렌 토머스 기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등 언론인들과 상견례 겸 첫 브리핑을 갖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MBC 에너지 절약 캠페인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고유가 시대!

작은 일에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MBC

김부식의 한심한 여성관

역사소설을 쓰다 보면 불가피하게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를 참고하게 된다. ‘삼국사기’는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정사(正史)로 인정받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고려 중기의 김부식이 사대주의적 역사관과 유학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편찬했으므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바가 많고, 비뚤어진 여성관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삼국사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삼국시대의 사실을 기전체(紀傳體)로 기술한 유일한 사서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만, 이미 같은 고려시대의 일연(一然), 이규보(李奎報), 이승휴(李承休) 등 지식층으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나왔고, 조선조로 들어와서도 안정복(安鼎福) 같은 이는 “너무 조잡하고 잘못된 바가 많아 역사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근세의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申采浩)는 “김부식의 고구려사 백 번을 읽는 것보다 집안(集安)의 고구려 유적 한 번을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역사적 가치나 사실 왜곡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것이 아니라 김부식의 여성관이다.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삼국사기’는 결국 일종의 필요악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읽을 때마다 김부식의 터무니없는 여성관에는 실소를 참을 수가 없다.

‘삼국사기’에는 김부식 개인의 역사관을 드러낸 논평 31개가 붙어 있다. ‘논왈(論曰)’로 시작되는 이 논평에서 김부식이 여성을 비하한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한다. 이 ‘논왈’은 신라본기 선

덕왕조 뒷부분에 붙어 있다.

- 천지를 두고 말한다면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운 것이요,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사내는 높고 계집은 낮은 것이다. 어찌 할망구가 안방에서 튀어나와 국가의 정사를 처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인가. 신라는 여자를 잡아 일으켜 임금 자리에 앉혔으니 참으로



황원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려와, 삼중지도니 남존 여비니 해서 여성을 극도로 천대했던 조선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지위도 높았거니와 사회적 위상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면 신라에서는 우리 나라 역사상 유례없이 여왕이 3명이나 있

고구려의 시조 추모성왕(고주몽)도 어머니 유화부인(柳花夫人)이 해모수(解慕漱)를 자칭한 바람둥이의 유혹에 넘어가 임신을 했으니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사생아였고, 평강공주가 부왕의 영을 거역하고 대궐을 뛰쳐나와 제멋대로 온달(溫達)에게 시집간 이야기도 유명하다. 또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씨(于氏)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동생 중에서 다음 제왕 겸 남편을 선택하고 여왕에 못지 않은 권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사 최초의 여걸로 알려진 백제의 국모 소서노(召西奴)를 보라. 비류(沸流)와 온조(溫祚) 두 아들을 둔 과부 소서노는 동부여에서 망명한 유부남 추모에게 반해 몸과 마음을 바쳐 그를 도와 고구려를 세웠고, 뒷날 배신당해 소후로 강등됨에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은 삼국시대 여성들의 활약상을 우습게 내려다보고 여성의 존재가치 기준을 오로지 효도와 정절에만 맞추었으니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인물 55명 가운데 여자는 겨우 효녀 지은과 설씨녀, 그리고 도미의 아내 등 3명에 불과한 까닭도 그 때문이다.

시대와 인물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는 가치의 잣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남자건 여자건 다 같이 소중한 존재다. 따라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서로 존중해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고루한 남존여비 사상에 따라 여성을 지나치게 비하한 김부식의 여성관은 해도 너무 했다는 감을 떨칠 수 없다. [9]

三國史記 선덕왕을 「암탉」 「암탤지」 묘사

어지러운 세상에서나 있을 일이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암탉이 새벽에 운다’고 했고, ‘주역(周易)’에는 ‘암탤지가 경충거린다’고 했으니 이 어찌 경계하지 아니할 것인가! -

이처럼 김부식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도 여자요, 내조해준 아내도 여인이건만 여성을 암탉이나 암탤지에 비유하는 망발을 자행했던 것이다. 김부식이 이처럼 여성을 극심하게 비하한 것은 그가 여성혐오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식견이 부족하여 삼국시대 여성들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탓으로 보인다.

자신의 책임 아래 편찬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분석해 보더라도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여성의 지위가 후대인 고

였으며, 신궁(神宮)의 제관도 여성이 맡았다. 또 삼국시대 남녀 간의 관계도 후대인 고려나 조선시대보다 훨씬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었다.

신라 왕족의 근친혼 이야기는 생략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가운데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야합’을 통해 태어난 사생아가 많았다. 예를 들면 원광법사(圓光法師), 김사다함(金斯多含)이나 김유신(金庾信) 같은 거물이 사생아였고, 법흥왕은 왕자 시절 백제에 들어간 동성왕의 딸 보과공주와 사통했으며, 후대의 인물인 백제 서동왕자가 무왕으로 즉위하기 전 서라벌에 잠입해 선화공주와 통정하고 백제로 데려와 부인으로 삼은 경우도 유명하다. 또 회귀한 경우이긴 하나 신라에서는 귀빈에게 처첩을 ‘대접’하는 풍습도 있었다.

溫故知新

‘아자!’ 國漢混用 語文

사람이 나이를 80대 중반 허리까지 먹고 살다 보니 古典의 名句가 젊었을 때와는 달리 새삼 싱상하게 지금 여기에 한 자락 찾아 와서 言語에 대한 眞實을 잠시 얘기해 보자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얼른 결론부터 단순화하여 적어 보자면, 오늘의 韓國語와 日本語, 이 두 나라 언어가 각기 갖고 있는 상황은 老子의 옛 名言을 막바로 가져다가 붙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외람되지만 나의 생각이다.

곧 韓國語는 “몹시 아끼는 터라 크게 허비하게 된다”(甚愛大費)는 바로 그런 꼴을 짓고 있으며, 日本語는 “만족함을 아는 터라 창피당하지 않는다”(知足不辱)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요약,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표기로서의 漢字, 일본어의 표기로서의 漢字 문제를 통하여 그 대강만 훑어 보아도 금방 알 일이다.

내가 몇해 전 光明市 관내에 있는 경찰서 교통과에 불 일로 간 적이 있다. 입구 안내실 義警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나는 보사부 장관 발행(1990년 12월)의 경로우대증을 내놓았다. 거기엔 다른 것은 다 한글 표기이고, 성명만은 漢字 표기다.

“어르신 성명을 뭐라고 읽습니까?”

대뜸 이 義警의 묻는 소리에, 후딱 스치는 모욕감 같은 것을 슬며시 능치며 내 이름이 그리 어려운 글자가 아닌데 성명에 나오는 漢字 석자도 못 읽는

한글세대 公職 청년한테 걸려들었구나, 쓸데없이 自責하며 망가진 언어 소통생활을 개탄했다.

또 한번은 光化門 우체국에 등기 소포로 책을 부치러 갔을 때에도 그런 일이 생겼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성명만을 평소의 내 버릇대로 漢字 표기한 것이 이번에는 소포담당 女職員한테 부담을 준 것이다. 읽을 줄 모르니까 성명 入力를 못하여 영수증(접수증) 발급을 늦추며 하는 말이



민기

-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 작가

로 본다. 漢字 낱말로 作名한 漢字 성명을 배우지도 않고, 한글 표기된 상태에서만 뭐든지 소통된다면, 아마도 ‘반기문’으로만 아는 한국에선 멀지 않아 유엔사무총장의 성명인 潘基文도 일본이나 중국의 신문·잡지에서나 접하게만 될지 모를 것임에 틀림 없다.

한글 專用, 한글만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꼭 사용해야 될 漢字 성명 표기마저 크게 줄여서 韓國

한국이나 일본이나 文字 표기의 素材인 漢字는 그 대부분이 중국 傳來의 것이며지금도 여전히 共通的인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韓國語 속에 도입된 漢字는 한국 나름으로, 日本語 속에 도입된 漢字는 일본투로, 이미 그 機能면에서나 同音異義語의 발생면에서나 각각 서로 다르게 중국말 漢字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것이 된지 오래다.

한국은 1910년대에 와서 國漢混用語文의 발전이 촉진되었는데, 물론 옛 발음대로 漢字는 音讀으로만 발음하는 소위 ‘뜻은 머리 속으로 삭인다’는 말하자면 ‘意讀’을 배제한 單線방식을 굳혔다.

古代 韓國語인 원시 固有語 속에 漢語와 漢字가 受容되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표기文字는 바로 언어 그 자체가 되어 膠着語인 表音文字 韓國語에 먹혀들어 녹아온 孤立語인 表意文字 漢語·漢字는 한국어 母語의 한 부분으로 살아 남았다.

이런 관점에서 살필 때, 文字도 언어 그 자체이고, 또한 文字 표기도 언어의 단순한 ‘수동적이고 암전한 容器’가 아님을 알 수 있겠다. 말의 그림자가 글 자라거나, 글자의 그림자가 말이라거나 하는 언어학은 이제 터무니 없는 妄發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11면으로 이어집니다〉

漢字 제대로 써야 한국어 世界化 된다

‘閔씨’ ‘權씨’를 못 읽는다는 것이다. 하도 기가 차서 나는 “뜸나는데로 가르쳐 줄 테니 하루 한자씩 배우면 1년이면 300자는 알게 될 게 아니냐? 우리나라 성을 모르고 어찌 서울 한복판의 우체국 공무원으로 앉아서 일할 수 있단 말인가?” 소리쳤다.

한글세대 여직원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차라리 이 경우 英字 스펠로 썼더라면 충분히 認知할 수 있었을 것으

語는 계속 浪費一路에 봉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韓·日 양국의 姓氏 총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불과 247개 氏(1973년)라는 매우 적은 양인데 견주어 일본은 그야말로 ‘姓氏大國’으로 12만개 氏(1981) 이상이나 된다. 왜 우리가 이 소량의 漢字 姓氏 표기(또는 漢字 성명 표기)를 버리는 허비의 길을 걸어 왔던가, 누구라 할 것 없이 한번 省察해 봄이 옳다.

三戒銘지켜 아직도 현역... 「늙음」은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7>

회우초대석

李志雄

· 전 동양통신 편집국장
· 전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
· 현 서울광학산업(주) 대표

인터뷰 / 최희조(본보 편집위원 · 중부대 초빙교수)

이지웅(李志雄) 회우. 1922년생인 그는 올해 미수(米壽·88세)를 맞는다. 23살에 기자가 돼 편집국장을 역임하고, 50대 초반에 그만 두기까지 30여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다. 그뒤 사업가로 변신, 지금까지 30여년 이상을 중견 제조업체 대표로서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신 월남 길에 나서는 막내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들려 주던 어머니의 3(戒) 당부, 기자가 된 사연, 목숨을 건 6·25 전쟁 중군 취재, 제주 4·3과 여순 반란 사건 취재, 사업가로서의 새 출발과 구슬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늙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원기왕성한 현역 CEO 생활 등등. 그의 일생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1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생곡면 병암리 서울광학산업주식회사 공장으로 내려가 이 회우를 만났다. 산자락 30,000여평의 부지에 자리잡은 이 회사에서는 40여명의 정예 직원들이 건평 2,500평 되는 공장 3개동에서 각종 첨단 정밀광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니 ‘창립 35주년 2009년 1월 8일’이라 쓴 현수막이 첫 눈에 들어왔다. 공장 사무실로 통하는 길목 한 켠엔 노리다 도시오(車田利夫)라고 명패를 새겨넣은 일본인 이름의 흉상이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장실은 네댓평 크기로 책상이랑 집기들이 공장 들어설 때 갖춰 놓은 그대로인 듯하고 카펫조차 깔려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 설립자로서 회장 아닌 사장 직함을 고수하고 있는 이 회우의 연세는

첫 인상에 20여년 이상 낮춰 봐도 좋을 것 같았다. 장시간 인터뷰 도중 간부 사원의 잇단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에서도 연세는 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그 연세에 어떻게 사장 일을...”하고, 반신반의했던 현장 방문 전까지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실감했다. 어쩌면 이 회우야말로 국내외 통틀어 제일의 노익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엔 서울 집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면 내내 공장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게 전부예요. 머리만 깎으면 (절간의) 승려나 다름 없어요.”

첫 질문은 당연히 건강과 젊어 보이는 비결이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큰 병을 앓았거나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어요. 이곳에 내려와 한 20년 지내다보니 특히 공기가 좋아 눈이 맑아졌어요. 혈압이라든가 당(糖) 수치도 정상이어서 약을 먹지 않아요. 담배는 좀 피다가 일찍이 30대 초반에 끊었구요.”

-약주는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젊어서 둘이 마시면 양주 두 병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요즘은 소주 한 병 정도가 좋은데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1주일에 두 세 번 마셔요. 공장 나이 만큼 35년된 사원도 있구 하니까 사원들 하고 어울려 한 잔 하게 돼요. 소주를 병째로 꼭 중탕을 해서 마셔요. 그렇게 마시면 다음날 뒤끝이 아주 개운해요.”

-운동은 안 하시나요.

“젊어서는 승마도 했고 5년 전까지 테



언론계 30여년 봉직뒤 사 후계자 정할 때까지 현장

니스와 골프를 많이 쳤어요. 테니스는 심장에 무리를 준다고 해서 안하고 골프 연습장에 가끔 나가요.”

-어떻게 기자가 되셨나요.

“평북 정주(定州)에서 태어나 오산(五山)학교를 나왔어요. 고향에서 소학교 선생을 1년 하다가 1945년 해방되던 해 혼자 월남해 서울에 왔어요. 아는 사람은 물론 아무런 기반도 없었죠. 그런데 수중에 돈이 거의 바닥날 무렵 어느 날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다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오산학교 다닐 때 평북 도청에서 발행하는 학생신문에 제가 쓴 글이 게재되곤 해서 작문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뜸 광화문 동아일보사 2층에 있던 중앙통신 기자 입사를 권유해 그해 9월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때 중앙청 앞 길거리엔 화재예방 표어가 나붙어 있

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를 취재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첫 기사를 취재 작성했던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단신 월남 하셨나요.

“네. 그래요. 당시 부친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형 둘, 누님 한 분과 조카들이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대문까지 쫓아 나오셔서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개고기를 먹지 마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적으로 만들지 마라”고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일’은 일제의 경찰을 염두에 두신 것 같고, 개고기는 불교 신자여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월남 이후 이 세 가지 어머니 말씀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는 서울 와서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의 3계(戒) 중 사람 죽이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떠올라 이를 만에 자퇴했다. 중앙통신에서 한 1년 일하다 대한일보(발행인 이종형)로, 다시 평화신문(사장 홍찬), 연합신문(양우정)을 거쳐 동양통신(김성곤)으로



중군기자 시절.



정일권 총리와 함께.

회우들이 펴낸 新刊

구종서 회우 '칭기스칸에 관한 모든 지식'

오랫동안 몽골의 역사에 천착해 온 具宗書회우(한국문명사연구소 대표)가 그의 몽골사 연구의 결정체로 <칭기스칸에 관한 모든 지식>(살림출판사 410쪽)을 최근 펴냈다.

저자는 칭기스칸이 다섯 형제와 어머니 등 9명의 가족만으로 몽골 초원 유목민을 통일하고 나아가 역사상 인류 최대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책 저술의 첫 번째 목표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많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천년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산 것으로 평가된다. 칭기스칸의 이러한 성공 요인을 저자는 첫째 철저한 보상

심리 즉 복수는 철저하게 하고 은혜는 후하게 갚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유목민의 전통과 둘째 자기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취욕, 셋째 자기 것을 올바르게 지키고 키워나가는 관리력,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술 전략을 실천한 것 등이라고 이 책에서 꼽고 있다.

저자가 밝힌 이 책의 두 번째 목표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성공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800여 년 전 12~13세기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서 찾아낸 칭기스칸의 성공요인이 바로 누구에게나 성공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는 성공방법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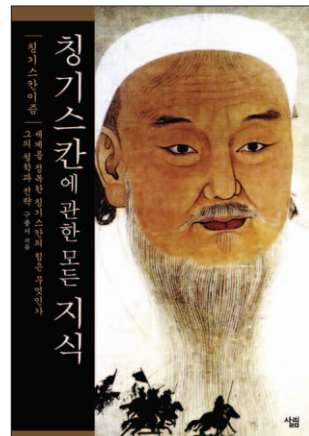
내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네 차례의 몽골 현장답사와 현지 자료 조

사, 세 차례의 중국, 일본 답사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 미국 등지의 답사를 통해 360권이 넘는 도서와 40여 점의 지도 등 시각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이다.

저자는 이미 이 책을 내기 전 <세계의 정복자, 대칭기스칸>(3권)과 고려시대 여몽전쟁 모습을 실은 <항몽전쟁>(3권), 고려와 몽골의 강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강경과 군인들의 투쟁을 담은 <불멸의 민족혼, 삼별초>(3권)에서 꾸준히 이어온 칭기스칸과 몽골 역사 연구의 결정체로 <칭기스칸에 관한 모든 지식>을 펴냈다는 것을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신문사 전문기자과 국제부장, 논설위원으로 일하면서 익힌 국제정치, 전략문제 전문가로서의 실제적 안목과 정치학 박사로 이어진 꾸준한 학문 연구가 또한 이 책 저술의 바탕이 됐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2009 시산제

북한산으로 초대합니다

벌써 입춘도 지나 초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우 여러분 건강이 무엇 보다 최고이니 “산행을 즐겁게 합시다.” 본회 산악회는 기축년 시산제를 오는 2월 28일 토요일 북한산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회우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산 행 지: 북한산 능선(구기터널 입구 출발 1시간여 소요)

시 산 제: 2009년 2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일시 및 장소: 2009년 2월 28일 오전 10시 정각,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 광장

뒤돌이 장소: 청정수산 회집(전화 : 02-353-0567)

2009년 2월 16일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 안중우

청으로 동경대학 대학원 사회학B코스(신문학) 유학을 할 때 사귀 분이 있어요. 일본 광학의 창업자 ‘노리다’ 씨로, 그분으로부터 기술이전 등 모든 지원을 해줄 터이니 공장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 분야를 몰라 처음엔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안양에서 시작하게 1974년이요 음성으로 공장을 옮긴게 1987년이예요. 그게 어느덧 창업 35년, 충북에 와서 22년이 됐어요.”

-사무실 입구의 흉상이 바로 그 분이군요.

“그래요. 그분은 얼마전 작고했는데 저와 동갑이예요. 원래 평북 영변 태생의 한국인으로 14살 때 일본에 건너가 귀화했어요. 안양 공장에 일본 부장급 기술자 5명을 돈 한푼 받지 않고 상주시키며 기술지도를 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어요. 오늘날 서울광학의 절반은 그 분이 이뤄 준거나 다름 없어요.” 그의 공장에선 웬만한 렌즈는 다 설계 가공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표 만드는데 쓰이는 직경 4m짜리 노광장비 렌즈도 만든다. 연간 매출은 50억원 정도. 수출비중이 높다.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몸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어가며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후계자를 물색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 회사엔 현재 빛이 한 켤도 없어요. 누구든 와서 경영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운영자금도 충분히 마련해서 넘겨 주려고 해요.”

재작년에 결혼 60주년 회혼례를 치렀으며 부인과 슬하에 2남 2녀와 8명의 손주들을 거느린 다복한 가장이기도 하다. [주]

‘아자!’ 國漢混用 語文 <9면에서 이어집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古代 日本語도 중국과는 다른 언어였으며, 최초의 표기는 漢文이었다. 漢字만을 써서 그들 언어의 統語法으로 글을 적는다고 試圖했다. 몇세기가 지난 뒤 漢字를 읽는 방법으로 시작부터 單線의이 아닌 두가지 발음 방식, 곧 音讀과 訓讀이라는 複線방식을 생각해 냈다.

어느덧 일찍부터 일본 文字의 기초요 原型이었던 漢字 借用시기 뒤에, 일본은 독자적 文字인 ‘가나(假名)’表記시스템, 그것도 서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히라가나(平假名)’ ‘가다가나(片假名)’ 두벌방식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역시 膠着語이며 表音文字인 日本語 속에 녹아들여온 孤立語이며 表意文字인 漢語·漢字는 일본 固有語로 자리매김하여 표기文字가 바로 이 언어의 實體 그 자체로 구실하며 일본어 母語의 한 부분을 버티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읽기에는 音訓二重性 방식이고, 적기에선 國漢混用語文이로되 ‘가나’ 경우 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두벌식 표기 방식을 갖게 된 것이다. 문자연구가 피셔(S. R. Fisher)의 말대로 “日本語는 이제껏 지구 위에 존재했던 文字 중에서 가장 복잡한 文字로 표기되는 말이다.”

나는 반년 전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가 쓴 ‘漢字의 아름다움’이라는 수필을 읽고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들었다. 일본 술 이름 招德·醉鯨·香露 따위 여섯 개의 漢字표기 이름을 들어, 그 이름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想像을 자극받기 때문에 빈병 상자를 버리지 않고 부엌 한 구석에 줄세워 두고 있단다. 그

러고는 덧붙이기를 그것이 “오늘날 유행하는 겉모양 방식으로 ‘히라가나’로 쓰여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고 의지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것이다. 뭐든지 ‘히라가나’로 해버리는 風潮는 좋아하지도 않을 뻔더라 惡弊라고까지 생각하며, 한편 漢字쪽은 입체적이고 3次元的이므로 아름답고 기쁘게 다가 더 보태서 想像하는 능력을 훈련할 바엔 ‘最適의 手段’이라고 여기는데, 어떨지요 했다. 자못 漢字 표기에 知識한 모습이 역력하다. 과연 일곱 번 산다는 이분의 芳名 ‘七生’도 함께 기억될 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어떠한가. 15세기,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인류의 知的業績의 가장 위대한 것의 하나’인 한글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날부터 國漢混用語文의 實用的인 사용을 지속적으로 힘쓰지 않고 漢語·漢字 쪽에만 집착해 왔는가. 그러고는 어떤 것에 정신 팔려서 21세기에 와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한글 專用表記 방식만으로 急變하고야 말았는가. 한편에선 ‘國語과괴’라 외치고 있는 극소수이지만 言論人도 있고 教授도 있고, 끝내 자기 성명만은 漢字표기로 요구하며, 안 해주면 원고 게재를 포기하겠다는 詩人·作家도 더러는 있다는 사실을 필자도 알고 있다. 500년 동안 國漢混用語文을 잘 써왔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韓國語는 힘이 제대로 솟아 세계 普遍語로 컸을지도 모른다. 老子의 말대로 한국어는 甚愛大費했던 터이다.

蛇足を 한 가지 달면, ‘힘내라!’라는 응원口號 대신 앞으로 나아가자의 뜻을 담은 철부지 縮絀語 ‘아자!’를 넣은 제목을 부디 용서바란다. [주]

없다

업가 변신
지킬 각오

옮겨 편집국장, 편집인으로 일하다 1976년 퇴직했다. 동양통신 24년 8개월을 포함 32년간을 언론인으로 보냈다. 현소환, 최시중씨가 동양통신때 함께 일한 분들이라고 한다.

6·25전쟁 중에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때까지 3년간 종군기자를 했고 국방부를 오래 출입했다. 전선을 누비며 취재했던 일과 제주 4·3과 여순반란사건 취재할 때 현장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모두 목숨을 건 취재였다. 여순사건 땀여수서 순천까지 밤새워 뛰어가 우체국에 가서 숙직자를 깨워 밤 12시 서울로 기사를 송고하기도 했다. 종군취재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김진섭, 문제안, 임학수, 이해복 회우 등이 종군기자 동료다.

-언론인에서 사업가가 되신 경위를 들려주시죠.

“기자를 하다가 사업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것도 광학제품 같은 기술집약 산업에 뛰어들 것이라곤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외무성 초

미니 회고록

왜 체육기자였나

咸氏와 雁行

6·25 전해인 1949년 2월, 지금의 KBS 전신인 공보처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보도기자를 모집한다기에 응시하였다. 당시 호출부호 HLKA의 서울중앙방송국은 덕수궁 북쪽 담 너머, 덕수초등학교를 굽어보는 벼랑 위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자그마한 건물이었다.

기술과가 지하에 있었고 1층엔 방송과와 연예과의 뉴스용 스튜디오가, 2~3층엔 연주용 스튜디오가 자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필기시험은 상식문제풀이 한 가지 뿐이었다. 약 5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쓸 건 쓰고 못 쓸 건 못 쓴 가운데 ‘함씨’라는 문제가 나왔던 것이 기억난다. 처음 접한 단어였던지라 답을 쓰지 못하고 넘겼다가 집에 돌아와 사전을 펴보았더니 ‘남의 조카’를 일컫는 높임말이라고 적혀있었다.

잘 치렀다고 여기지도 않았는데 합격하였으니 면접에 응하라는 통지가 왔다.

면접은 8·15전에 조선방송협회 회관으로 쓰였던 KBS본관 안의 방송국장실에서 실시되었다. 당시 국장은 헤이그 밀사사건의 정사였던 이상설의 친조카인 이관희(李觀熙)씨. 면접위원은 그를 포함하여 3~4명이었다고 기억되는데 이관희 국장이 “안행이 몇 분 이신가”고 묻는다.

‘함씨’처럼 ‘안행’은 난생 듣지 못했던 단어였던지라 “모르겠습니다”고 했더니 “그래요? 그래요!”라면서 고개를 가우뚱한 다음 됐다고 나가보란다.

틀렸구나 싶어 집에 갔더니 옛일에 박식한 사촌누이가 와 있다. 안행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더니 “형제를 말한 거.”라는 대답이다. 서둘러 펴 본 한글 사전에는 기러기 안(雁)과 같 행(行)자가 적혀 있었다. 기러기가 줄지어 가는 형태이니까 형제란 뜻이었던 것이다.

형제가 몇이나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으니 무식하다고 여겼으리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얼굴이 절로 붉어지는 것이었다.

방송과의 사람들

그런데 며칠 후 합격했다며 방송과로 출근하라는 통지가 날아왔다. 용약 방송과에 나갔더니 과장은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인 민재호(閔才鎬)씨였다. 민과장의 고향은 황해도였으나 연희전문문과 출신으로 8·15전에 조선어 아나운서로 일본방송협회(NHK) 경성방송국(JODK)에 채용되어 방송실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깨끗한 표준어를 쓰는 지식인이었다. 참고로 민재호의 재자는 재주才 밑에 솥鼎자를 쓰는 글자였으나 지나치게 까다로워 그를 아는 이들은 재호의 ‘재’자를 才로 표기했다.

방송과엔 2개의 계가 있었다. 아나운서의 집단인 방송계와 뉴스제작의 보도계였는데 방송계장은 활달한 성격으로

연희전문 재학 때엔 아이스 하키팀의 골키퍼를 맡았던 전인국, 보도계장은 선비인 조한금씨였다. 또 하나 참고로 적자면 얼마 전까지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을 지낸 한영섭(韓永燮)이 필자와 보도계 입사동기였고 숙명여대 총장을 지낸 김옥렬 아나운서 또한 입사동기였다.

보도계에 출근했더니 선배기자로는 훗날 연합신문, 한국일보를 거쳐 국회의원인 편용호가 국회에 출입하고 있었고, 서울신문 사회부장을 지낸 김우용이 국방부 출입이었으며 민영 문화방송(MBC)의 초대 보도국장을 지낸 김인현은 수석기자로 조한금 계장을 보좌하고 있었다.

스포츠를 취재하라

갓 입사한 올챙이 기자들은 김인현 수석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주는 통신을 원고지에 아나운서가 읽기 쉽게 회화체의 큰 해서글씨로 옮겨 쓰는 것이 일과였다.

그 무렵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말미암아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옮겨 쓰면서 ‘설마 3차 대전으로 확전하지는 않겠지’하는 느낌을 가져 보기도 하였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날 민과장이 부르더니 “체육기자를 해보지 않겠는가”고 필자의 뜻을 묻는다. 저녁 9시 뉴스를 마치면 이어서 10분간 스포츠 뉴스를 흘릴텐데 취재해서 원고를 작성하여 방송계에 넘기라는 지시였다.

저녁 9시면 보도계장은 물론이고 당직 기자를 제외한 보도계 모두가 퇴근한 뒤, 필자 혼자 남아 기사를 써서 넘겨야 하는 것이니까 내용을 검토해 줄 선임자도 없다.

필자가 알아서 취재하여 10분 분량의 기사를 만들어 방송계에 넘기면 되는 것이었다.

민과장이 스포츠를 취재하라고 지시한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여긴다. 1948년, 영국 런던에서는 제 14회 올림픽대회가 거행되었는데, 그는 유일한 보도요원으로 런던에 가서 BBC의 해외방송 시간을 빌려 하루에 15분씩 국내에 한국 선수단의 소식을 전하는, 한국의 해외파견 최초의 아나운서였다.

연전에 다닐 때엔 축구부 매니저를 맡았었고, 따라서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여 JODK에 입사해서는 축구와 농구의 중요 경기를 도맡아 중계방송하였으며 때로는 공식 축구경기의 심



조동표

- 본회 회우
- 전 일간스포츠 논설위원
- 스포츠 전문가

판을 맡기도 하였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8·15 전후의 수년간)의 가장 까다로운 축구경기는 연보전(延普戰)과 양교가 대학으로 승격한 후에 펼쳐진 고연전이었는데, 민과장은 연전 출신인데도 그 보기 어려운 양교간 대전의 주심을 맡을 정도로 공정하고 지성과 이성을 지닌 스포츠맨이기도 하였다. 그랬던 민과장이었기에 스포츠 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자신의 재량에 맡겨진 방송시간에 스포츠 소식을 애청자에게 알려야겠다고 여겨 필자에게 스포츠 취재를 지시하였으리라.

어렸던 시절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고 응낙했다. 훗날 체육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대구에서 필자의 초등학교 시절을 아는 친구들 몇이 술을 마시다 “그 녀석이 체육기자야?”하고 놀란 다음 깔깔거리고 웃은 끝에 그 소식을 안주삼아

오랜 시간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고 한다.

옛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엔 이유가 있었다. 어릴 때의 필자는 병약했다. 약령시로 이름난 고장인 만큼 대구엔 한약방이 많았다.

결핍하면 골골하는 필자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이 약방 저 약방에 진맥을 청하는 통에 “아무개 님의 막내아들 맥짚지 않은 의원은 돌팔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집안엔 언제나 한약 달이는 냄새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옹하다는 일본인 양의(洋醫)의 진단을 청했더니 당장 나타나는 병은 없으나 체질이 선병질(腺病質)이라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란다.

선병질이 무어나고 물었더니 “쉽게 말하자면 결핵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라고 설명해 준다.

1930년대의 초등학교 체육시간은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운동장에서 하는 법이었다. 대구는 분지여서인지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모진 더위와 추위 속에 옷 벗고 달리고 뛰고 던지는 것이 싫어, 선병질이라고 선고받은 것을 핑계삼아 담임선생의 양해를 얻어 열외견학으로 시간을 때운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 옛 사실을 기억했던 녀석들이 필자가 체육기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깔깔거린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스포츠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은 즐겼기에 민과장이 뜻을 묻자 즉석에서 하겠다고 응낙

했던 것이다.

1930년대 중반의 대구엔 조선인만이 다니는, 그리고 일본인만이 다니는 곳을 합하여 초등학교가 5~6개에 불과하였다. 해마다 봄 가을에는 그들 간에 육상경기 대회가 거행되었는데, 그랬던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대항 릴레이 경기를 보면서 필자는 다니던 대구보통학교팀의 승리를 위하여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응원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 프로야구팀이 내구(來邱)하여 울(全)대구와 대전했다. 팀은 나고야 키크(金鯱)군이라고 했으니까 선동열이 던졌던 지금의 주니치 드래곤즈의 전신이었을 것이다. 관람료가 10전이었다. 당시의 10전은 빈한한 한국인 가정의 어린이로서는 좀처럼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의 용돈이었다. 그런 10전을 어머니에게 졸라 얻어서는 기어코 구경하고 말았으니 스포츠 감상을 무척 즐긴 소년이었었던 것이다.

최초의 방송체육기자

스포츠 뉴스시간은 10분. 10분 동안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는 속도에 맞추어 쓰는 원고의 분량은 이만 저만 많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매일 시간에 쫓기며 수행해야 하는 중노동이었다.

우선 경기행사가 많아야 했는데 행사는 구하기 쉬웠다. 봄 가을로 장기간 펼쳐지는 것이 한성실업 야구연맹전이였다. 산업은행의 전신인 식산은행, 조흥은행, 농협의 모체가 되는 금융조합연합회 등 금융단팀에, 조선운수 경전(京電) 서울시청 전매국 운수부 체신부 등 실업팀들이 뒤섞여 연

맹을 이루었고, 이들이 리그전을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쳤으니 그 중 재미있는 경기를 골라 상보만 써도 시간은 어렵지 않게 메울 수 있었다.

그러나 기사에 버라이어티를 주어야 한다. 타구는 동대문운동장 맞은편 고양군청의 강당에서 흔히 거행되었고, 체조는 을지로 6가의 서울대 사범대 강당에서 거행되었으며, 농구는 운동장 앞 전차길 건너 옛 훈련원 자리에 마련한 제 2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유도와 검도는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자리에 있었던 옛 육조가 담장 속의 무덕관에서 거행되었다. 그런 곳을 씬 없이 돌아다니며 취재하여 기사를 썼고, 때로는 중구 중앙극장 맞은편 서울중앙세무서 구내에 있었던 대한체육회에 들러 행정기사도 취재했다.

金九의 마지막 나들이

49년 6월 15일 보스턴 마라톤의 영웅 서운복이 지금의 플라자호텔 뒤에 있던 서울시 공회당 강당에서 고대 현상운(玄相允) 총장 주례로 신부 용영자(龍英子) 여사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손기정 이래 한국이 낳은 스포츠영웅의 결혼식이어서 당시의 국회의원(체육회장도 겸했음)인 신익희씨를 비롯한 수많은 국내 유력인사들이 하객으로 모여 이들의 혼인을 축하하였는데 피로연은 없었고 답례품으로 낚재떨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13면으로 이어집니다>

韓國史學 식민지 문화체질 극복을 촉구

韓國文化史論

金哲垞 著

서울대학교출판부

건국60년, 한국의 역사학 역사의식 역사교육 모두 혼미하다. 일제 식민사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채 고조선·고구려 역사를 중국 변방사라고 주장하는 중국 동북공정의 도전, 일제 침략이 한국의 근대화 동력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오만한 오리엔탈리즘 부활, 북한의 대한민국 60년 역사 폄훼에 동조하는 친북 자학사관의 도전 등으로 한국사는 혼란스럽다. 이른바 민주화이후 김대중·노무현 좌편향 정권 집권기 대한민국 건국까지 부정하는 친북 좌파 세력의 현대사 왜곡이 학교 교육까지 흔들어, 새 세대의 역사인식을 혼란시켰다. 80년대에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건국, 6·25, 압축 경제 성장 과정의 모순에 대한 한국 지식 사회의 내부 자성적(自省的)비판이 있었던 것은 바람직한 것이었다. 폭압적인 정치 현실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이 비판이 한국의 60년대 압축 경제 성장에 적극 참여한 경제학, 정치학, 사학, 사회학 분야에서 제기된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자성적 비판이 좌경 세력의 선전선동에 휩쓸려, 건국 60년을 친일, 독재, 부패로 매도한 자학사관이 역사교육과 좌편향 정권의 정치 이념으로 자리잡게 방치했던 것은 큰 잘못이었다. 친북 자학사관은 노무현 정권기 국가의 이상, 국정 운영 방식, 정치 의식의 기반을 바꾸고 국민 경제를 뒤흔들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학사관(自虐史觀)

書舍餘話 ⑥

韓國文化史論 金哲垞 (서울대 출판부)

은 건국 60년사를 왜곡하고 건국과 산업화에 기여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기성 세대의 헌신과 성취는 낮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면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 자학사관의 역사교육을 받은 전후세대는 건국 60년 역사를 버려야할 유산으로 혹평하고 그 역사를 피땀 흘려 이룩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멸시하고 증오해 세대간 갈등을 일으켰다.

역사 해석엔 이견과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논쟁은 진실에 바탕을 둔 것 이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친북 자학사관의 백가쟁명은 북한의 남한 비방을 그대로 옮긴 정치적 선전선동이 대부분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검인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검증되지 않은 친북 자학사관이 여과없이 수록돼,

으로 다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교과부와 일부 사학자들은 친북 자학사관을 인정하는 양시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자학사관 청소에 나서야 할 정부나 학계의 애매한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와 역사학계부터 변해야 할 것 같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사를 왜곡한 식민사관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김삼기 홍이섭 천관우 김철준 이진희 최영희 이기백 한우근교수 등 건국 1세대 사학자들의 노력으로 많이 극복됐다. 그들이 건국 60년에 건국이란 개념조차 부인되는 이상한 오늘의 한국 사학계 풍토를 목격했다면 무었이라고 말했을까. 양시론을 펴거나 침묵했을까. 그렇지 않다.

타락한 政治세력 체제유지 詐欺 경고 親北 自虐史觀의 허구성 일깨운 계기

이명박 정부 출범후 교과서 포럼·통일부·국방부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검인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오류는 무려 253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교과부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성출판사 등에 제시한 교과부의 수정 권고문은 가관이었다. 1946년 소련군의 선동으로 벌어졌던 남한의 이른바 '9월 총파업'과 '10·1 폭동'을 민중봉기로 왜곡한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는 "남도당이 10월 농민봉기를 어떻게 사전에 계획 유도 조종했는지 연구 규명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공출' 대신 '미곡수집'으로 용어를 수정하라고 출판사에 애매한 권고를 했다. '9월 총파업'과 '10·1 폭동'은 당시 평양 주둔 소련군 문서에 의해 소련군 로마넨코 소장이 김일성 여운형에게 지시한 폭동으로 200만엔의 파업 지원금까지 주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분단 고착화 6·25 등도 김일성이 적화통일 망상으로 저지른 것

일제 식민사학 극복을 위해 식민지 체질과 한국사학의 한계 극복을 역설했던 김철준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와 뿌리였던 은사 이병도교수의 '국사대관'을 비롯해 동료였던 이기백교수의 '한국사신론' 한우근교수의 '한국사통론' 등이 일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뚜렷한 사관이 결여됐다고 비판, 한구사연구의 대전환을 제기했었다. 김철준교수는 환갑되던 해에 쓴 '한국문화전통론'에서 "국민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킬 토대를 생각지 않고 허상적(虛像的)가 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바른 문화의식과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는 극히 위험한 짓"이라고 경고하고 이러한 경향이 역사의식을 좌우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인 환상적 표방만으로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식민지시대 문화체질에서 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교수는 "역사는 그것이 현명했다, 역사적 과제를 해결했는가, 문화의 한계



박석흥

· 본보 편집위원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 건양대 겸임교수

를 극복 했나, 정제되었나, 탄력성이 있었나 단조로웠나, 세계사 진전에 기여했나, 대외교섭 관계에서 융통성 있었나 등으로 평가되어 후세의 거울이 된다"고 전제하고 한국사 체계화를 촉구했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문화기반 구축은 몇 세대가 단계적인 과제를 달성해야 최후의 목표가 완수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김철준교수는 민족의 바른 전망을 위해 지도층 지식층의 확고한 역사의식과 정치철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교수는 사관은 한시대의 문화를 운영하는 문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거 사관의 한계성 극복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며 우리 학회가 지금 조선시대 문벌을 존중하는 유교사관이나 일제하 사회주의 사관을 재생 보급한다는 것은 한국현대문화를 정체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수는 역사학자가 치밀한 진단 없이 표방만 서둘러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역설했고 우리 사회가 ▲민족통일을 궁극 목표로 설정, 남북의 타락한 정치세력의 체제유지 사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며, ▲지방의식을 창조적인 지방문화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전국민이 자유롭게 국가 목표에 참여하는 역사의식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노조 파업중 박모 연구원과 토론하다 순직한 김철준교수는 말년에 게이트키퍼 되지않은 제자와 후배들의 역사학 논문과 저술이 쏟아져 나오자 배신당한 것 같다고 술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교수의 많은 제자들은 학문에 정진하며 이명박 정부 말기가 되면 역사학의 혼란도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에 한국역사학이 우리민족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도 구화 되었던 편향적 사관을 극복,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필자]

<12면에서 이어집니다>

필자는 식당의 뒷좌석에서 식의 진행을 보고 있었는데 흰 두루마기 차림의 한국독립당 김구 당주가 도중에 식당 중앙에 나 있는 통로를 통하여 퇴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날의 나들이가 서대문의 경교장에서 기거하던 임정 김구 주석의 생전의 마지막 나들이였다. 서운복의 부인 용 여사에 의하면 김구 주석은 "결혼식에서는 국수를 먹어야지"하면서 수행원들과 함께 명동에 나가 국수를 들고 귀가하셨는데, 그 10일 후 국군 포병장교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그는 서거하고 말았다.

6·25가 터지던 날

그 날은 일요일이었으나 필자는 서울 운동장에 있었다. 제 2회 학도호국단 체

육대회 최종일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초대 문교부 안호상 장관의 주창으로 전국의 중학(6년제)과 대학에 학도호국단이 설립되었고 전해(1949년)에 이은 제 2회 대회 최종일이어서 결승전이 있달아 벌어지고 있었다.

여러 경기에 걸쳐 여러 날을 거친 결승전이어서 수준이 높을 거라 여기고 아침부터 취재하고 있는데, 정오쯤이 되자 중부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이 경기의 중단을 지시하더니, 모든 관중에게 북한인민군의 38도선 월경, 남침한 사실을 알리면서 해산하라고 방송한다.

그런가 하면 운동장 바깥선 국방부의 방송차가 "휴가 나온 전 장병은 시급히 원대 복귀하라"고 외치면서 을지로 6가에서 동대문쪽으로 질주하는 것이었다.

그 후 스포츠는 잠적했고 필자는 6·25동란 중 국군(육군)에 징집되어 종군

한 다음 55년 11월에 제대했다. 집에서 며칠을 쉬고 있는데 한국일보에 체육기자 자리가 비었다고 누군가가 알려준다. KBS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다리를 놓아 한국일보를 창립한 장기영 사장의 면접을 거쳐 이번엔 신문사의 체육기자가 되었다.

한국일보 입사

53년의 환도 후, 서울에 신문사는 많았다. 그러나 독립된 체육부가 있는 신문은 단 둘,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뿐이었다. 나머지는 기지는 있되 대부분이 사회부 소속이었으며 편집부 기자를 전국체전 때만 체육기자라고 내보내는 신문도 있었다.

선린상업 출신의 장기영 사장은 재학 중에 농구를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스포츠맨으로 이미 대한테니스협회의 회장을 지냈고, 55년 당시에서 KOC위원 외

에 서울 컨트리 구락부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한국일보엔 스포츠사업이 많았다. '주간스포츠'라는 주간지도 발행하고 있어서 특히 체육부가 독립된 부서였으나 부장 밑에 기지는 1명 뿐인 빈약한 취재진이었다.

최무기 라는 육상선수 출신 기자가 퇴사한 자리가 비었는데 마침 부산~서울간 역전경주대회를 치르게 되어 있어 손이 모자라는 비상시였기에 입사가 쉬웠으리라.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KBS에 입사했던 1949년부터 따지면 60년간, 6·25 때의 5년과 한국일보에서의 관리직을 맡았던 2년간을 제외하면 매일을 스포츠행사를 뒤쫓던 일생이다.

올해로 85세, 길지 않은 생을 남겨놓고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회고해 보면 일업(一業)에 종사하여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여기는 지금이다. [필자]



외국인 관광객이 볼만한 공연물 아쉽다



이규섭

·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해외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연이다. 다양한 공연을 통해 그 나라, 그 지방 문화의 속살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의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고급 공연물은 논외로 치자. 접근성도 쉽지 않고 관람료도 녹록치 않다.

앙코르 浮彫서 살아 나온 압살라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는 패키지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눈을 즐겁게 해준다. '신들의 정원'으로 불리는 앙코르와 트의 관문 씨엠립의 '압살라 민속춤'은 앙코르와 함께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캄보디아의 자존심이다.

화려한 머리장식과 잘록한 허리, 풍선처럼 부푼 가슴, 잡자리 날개 같은 하늘하늘한 옷자락, 손과 발의 움직임이 독특한 압살라 춤을 보고있으면 앙코르 유적군(遺跡群) 부조(浮彫)에 수없이 새겨놓은 압살라 무희들이 살아 움직이는 착각이 든다. 압살라는 우리말로 '천사', 그리스 로마 신화의 '넵트'에 해당되며 '춤추는 여신', '천상의 무희'를 뜻한다.

트랜스젠더들의 화려한 알카자쇼

태국의 휴양도시 파타야의 '알카자 쇼'는 세계 3대 버라이어티 쇼 가운데 하나다. 흔히 게이 쇼로 알려져 있으나 출연자 모두 트랜스젠더들로 미녀 뺨치게 예쁘다. 그들이 펼치는 쇼는 화려하다. 뽕보 트랜스젠더의 팬터마임은 배꼽을 쥐게 만든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한국 고전무용을 추고, 가요도 들려주어 한류열풍을 알카자 쇼에서도 실감한다. 쇼가 끝나면 무희들이 극장 앞에 나와 관광객과 기념사진을 찍고 팁을 받는다. 알카자 쇼보다 규모가 크고 탄탄한 스토리를 갖춘 '티파니 쇼'도 인기다.

파타야 열대식물 정원 녹농 오키드 빌리지의 코키리쇼도 눈을 즐겁게 한다. 음악에 맞춰 랍바다 춤을 추고 긴 코를 이용하여 농구도 하고 훌라후프도 돌린다.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축구도 하고, 누워있는 사람 사이를 넘기도 한다. 묘기를 끝낸 코끼리가 관광객 앞으로 다가가 던져주는 바나나를 먹고 다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귀엽다. 태국 전통무용과 대표적인 격투 경기인 무에타이 등은 입장료에 포함되어 무료다. 조련사가 악어 입에 머리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압살라 민속춤'.



태국의 휴양도시 파타야의 '알카자 쇼'.

캄보디아 · 태국 · 중국등의 화려한 공연 인기 지역특색 - 전통문화 접목 볼거리 개발 시급



협곡을 무대로 펼치는 소림사의 '선종소림음악대전'은 스케일이 크다.

넣는 등 아찔한 묘기를 펼치는 악어쇼도 화석공원의 필수 코스다.

아슬아슬 공중기에 상하이서커스

중국은 땅덩이가 넓은 만큼 공연물도 다채롭고 스케일도 크다. 베이징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문화체험은 경극(京劇)과 서커스다. '중국의 오페라'로 불리는 경극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전통 예술로 우리에게 영화 '패왕별희(霸王別姬)'를 통해 친숙하다. 대사보다는 노래와 연기로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외국인 전용 극장에서는 영어와 북경어 자막이 함께 나온다.

요즘은 서커스와 소림 쿵푸, 가면을 빠르게 변환시키는 '변검' 등을 맛보기 식으로 보여 주는 '전통 종합공연극장'도 부쩍 늘었다. 베이징 서커스가 접시 돌리기, 자전거타기, 원형 틀 빠져나가기, 외나무 묘기 등 집합예술성이 강한 반면 상하이 서커스는 공중곡예가 많다.

어린 곡예사들의 아슬아슬한 기예와 원통 속에서 6명이 오토바이를 타는 목숨을 건 묘기는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모두가 옵션이지만 요금이 아깝지 않다.

협곡 무대로 펼치는 '선종소림음악대전'

저장성(浙江省)의 성도 항저우(杭州)의 '송성가무쇼'도 화려하고 다이내믹하다. 남송시대 서호(西湖)를 배경으로 전설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 종반에 장고춤, 상모돌리기, 일본의 가부키 춤을 끼워 넣은 것은 다분히 한·일 관광객을 노린 문화적 상술이다. 무대 천장과 지하, 객석에서 출연진이 동시다발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열을 빼놓는다. 무대에서 대포를 발사하는가 하면 천장에서 비가 내려 탄성이 절로 나온다. LED 불빛 회오리 등 최첨단 조명과 입체음향도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스케일이 크기로는 단연 허난성(河南省) 소림사의 '선종소림음악대전'이다.

해발 1400m 봉산(崇山) 협곡의 나무와 바위 등 자연 그대로가 무대다. 총 5악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물, 나무, 바람, 빛, 바위를 주제로 노래와 춤, 무예를 곁들여 숨가쁘게 펼쳐진다. 음악과 빛을 이용해 소림사의 정신과 무술의 세계를 종합예술로 승화시켰다.

양치는 여인이 양뿔을 물고 무대에 오르고, 소림무예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온몸에 빛이 나는 발광(發光) 옷을 입고 허공을 날아다니며 칼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상상을 초월한다. 무대가 워낙 넓어 어디에 시선을 뒀야 할지 모를 정도다. 총감독은 '와호장룡'과 '영웅'의 음악감독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 탄둔(Tan Dun)이다. 700여명의 출연진과 600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공연이니 스케일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볼게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업계가 2010~2012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해외관광객 1,000만명 유치에 발 벗고 나섰지만 문화콘텐츠는 빈약하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중국의 10분의 1수준으로 세계 36위다. 아시아에서조차 8개 관광경쟁국 중 7위로 밀렸다.

왜 그럴까? 숙박비 등이 비싸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별로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광상품에 다양성과 특색이 없고 교통과 언어의 불편, 음식과 서비스는 부실하다. 경복궁 등 고궁관람 뒤 인사동에 들르면 싸구려 중국산 기념품이 판을 친다. 입장료 안 드는 청계천을 둘러 본 뒤 덕수궁 앞 수문장 교대시기의 시간에 맞추려면 험레벌떡 뛰어야 한다.

값싼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한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엔 볼 것도 없고 음식도 나빠 다시는 안 오겠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성산일출봉 등 입장료가 없는 곳 위주로 안내했으니 볼 것이 없다는 불만은 당연하다.

전통문화 상설 공연장 필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만한 공연 문화가 없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전통문화를 접목한 공연문화개발이 절실하다. 경북 안동의 하회탈춤을 중심으로 세계의 탈춤을 축제기간에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전통탈춤과 현대탈춤을 아우르는 상설공연장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다.

전북 전주 세계소리축제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특집공연' 등을 펼치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관소리와 함께 창극을 상설무대를 통해 공연하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축제를 해외 관광객 유치와 접목시키려면 전용극장 확보, 외국어 자막 처리시설, 숙박시설, 관련자료 전시실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 아니면 '한국방문의 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만다. [K]

동행

코바코와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기업과 방송이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친구,
국민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의 친구들과
멋진 하모니를 이뤄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는 방송광고 영업대행을 통해 방송사의 안정적인 경영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www.kobaco.co.kr

天國으로 띄우는 편지

아들아! 이번 설에도 못오니?

박종서 회우(한국 마케팅신문 식약신문 편집국장)는 작년 1월 1일 삼성전자에 다니던 아들(32)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절망 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착실한 기독교 신자인 박 회우는 마디마디 회한으로 남은 못다한 자식 사랑을 해외선교사업에 쏟고 있다. 지난 11월 네팔에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봉헌하고 돌아왔다. 박 회우가 아들에게 보내는 주소 없는 편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흰 눈이 펄펄 쏟아지던 날 너는 다녀온다는 말 한마디 없이 흰 눈 속으로 가물가물 떨어져 갔다. 발자국도 남기지 않은 채.

임신중인 처와 저녁을 먹고 있다는 전화를 한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너는 광주 조선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계에 의지해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

천리 길 달려간 아버지는 눈물과 기도 외에 너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임종이라도 고향 땅 서울에서 맞게 하려고 헬기를 대기시켰으나 무심한 하늘은 이 작은 희망마저 외면한 채 눈은 끊임 없이 내렸다. 광주는 소복을 입은 듯 하얗게 변했고 간절한 기도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눈 속으로 떠났다.

사랑하는 아들아! 절규하는 어머니를 보고 있니? 너 떠난 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아버지를 보고 있니? 강하게 살라고 아버지는 늘 너에게 긴장을 주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을 때도,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어려운 경쟁을 뚫고 삼성전자에 입사했을 때도 아버지는 언제나 칭찬대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 뿐이었지. 남들 다 가는 군대 면회 한번 가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였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사진에도 아버지 없는 자식 같구나. 너의 어리광스런 음성으로 지금이라도 아빠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구나. 무심코 꺼낸 콘사이즈 뒷장의 네 이름을 보고 울고, 냉장고와 세탁기에 붙은 삼성마크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작년 추석에도 오지 않더니 이번 설날에도 오지 않는구나.



박종서

· 본회 회우
· 한국마케팅신문
· 식약신문 편집국장

너의 모습 너의 음성이 들리는 듯 웃다가 울다가 아버지가 실성한 사람을 닮아 가는가 보다.

절규하는 엄마 기도가 들리니? 비행기가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어디선가 네가 마중을 나올 것만 같아 사방을 두리번 거렸다.

야 이 놈아, 그 동안 왜 연락도 없었니 하며 네 손을 반갑게 잡아주고 싶었다. 카트만두에서 인도쪽으로 3시간쯤 달리면 꾸링갓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고속도로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곳 200여평 대지에 본당 40평, 목사님 사택이 붙어있는 빨간 벽돌의 아담한 교회를 지어 봤으니 너의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니? 남달리 너를 사랑하던 돈암동 감리교회 김동걸 목사님도 오셨다. 사랑하는 형도 오고 형수도 왔다.

못다한 너의 꿈, 이루지 못한 너의 하나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서 마

음껏 펼치거라.

아들아!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있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꾸링갓 마을 언덕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무사히 완공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고 박진수 집사는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부부가 함께 성탄칸타타를 끝으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당신의 종이였습니다 그 영혼에 안식을 주옵소서. 여기 자식을 잃은 아픔에 소망을 잃고 실의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아비 어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여 씩씩을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박진수 집사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당신께 바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들아! 보고 싶구나. 거긴 출지는 않니?

2009 음력 설날 아버지가...

잊지 못할 사람들

용문산 전투의 영웅 宋大厚장군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세 곳을 꼽는다면 백마고지 전투, 도솔산 전투, 용문산 전투일 것이다.

1951년 중공군은 춘계 대공세로 63군 예하 87,88,89 3개 사단을 번갈아 가며 그야말로 인해전술로 용문산을 끈질기게 공격해 왔다.

이를 맞아 고군분투, 적 3개 사단의 절반을 섬멸했던 아군은 6사단 2연대였다.

지금 용문산 입구 매표소에서 오른쪽으로 100m쯤 떨어진 곳에 용문산 전투 대첩비가 세워져 있다.

나는 이 믿기지 않는 대전과를 올린 연대장은 과연 어떤 군인일까, 매우 궁금하여 2연대를 찾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투를 지휘한 군인은 연대장 직무대리인 중령이었다.

내가 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정식 연대장을 발령받고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송대후(宋大厚) 대령의 첫 인상은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바짝 깎았고 눈은 형형하여 바로 보기가 거북했다. 그의 나이는 약관 29세. 그날 밤은 연대장 숙소에서 그와 함께 잤다.

지금 기억에 남는 전공담은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연대본부도 위태로울 때 그는 연대장실에서 한 손으로는 수화기를 들고 작전을 독려하고 한 손으로는 권총을 뽑아들고 연대장실로 뛰어드는 중공군을 쏘아 쓰러뜨리는 아슬아슬한 장면이다.

백병전이 끝나고 포로가 된 중공군 병사들에게서는 모두가 만취상태로 술냄새를 풍겼다. 중공군 지휘부는 병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배갈을 먹였다고 했다.

밤새 연대장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대대, 중대에서 연속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크레이모어(대인지뢰)가 터졌다. 중공군의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는 정보 보고였다.

송 대령은 아니야, 맏돼지가 잘못 났은 것 이라고 타일렀다. 나도 밤새 잠을 설쳤다.

신문사로 돌아온 나는 2연대 '르포' 기사를 써냈다. 송 대령은 용문산 대첩의 공훈으로 준장 진급했다.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이일보 도쿄특파원
· 6·25 중군기자

도 있었다. 거나하게 취했다. 그런데 옆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몹시 거슬렸다. 대뜸 어떤 놈들이 떠드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옆방의 술꾼은 서울의 이름난 강패들이었다. 서로 험한 말투가 오갔다. 끝내는 강패들이 장군의 술자리를 덮치고 주먹질이 오갔다. 난장판이 됐다. "장군을 몰라 봐", "사복인데 알게 뭐야!"

술자리가 파하기를 기다리던 전속 부관과 운전병이 급보를 받고 권총과 장총

에서 꺼냈다.

황급히 경호실 당직 책임자가 보고했다. 만취한 장군이 행패를 부린다고.

노대통령은 "포살을 할 놈이로다"라고 했다. 송 장군은 육군 헌병감실로 이첩되었고 다음날 아침 경무대 비서실은 한밤중 장군의 무례를 육군참모총장실로 알렸다.

황급히 육군본부 군법회의가 열렸다.

"파면!" 판결이 떨어졌다. 당시 군법회의는 1심제였다.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은 불쌍이 제게까지 될까, 몸을 낮추어서 숨을 죽일 뿐이었다.

사회나 군부에 어른이 없었다. 별을 단 직후 그를 불러 '기'를 죽이라고 타이르는 선배도 없었다.

국방장관과 육참총장은 경무대로 달려가서 용문산 대첩의 전쟁 영웅이니 널리 용서를 구하는 배짱도 없었다.

후일담이지만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만약 용문산이 뚫렸더라면 서울은 다시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엄청난 재앙이 뒤따랐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송 장군의 전투업적을 알렸던들 손자 뻘되는 젊은 장군의 목을 굶이 치는 웅졸한 노대통령도 아니었을 것이다.

별이 떨어진 송대후 씨는 쓸쓸한 나날을 보내다가 40세를 넘기자 갑자기 죽었다.

남양주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용문산.

해마다 봄이 오면 용문산 입구에는 용문산 깊은 산중에서 뜯은 산채를 파는 아낙네들로 북적인다. 새해 봄날이 오면 오랜만에 차를 몰아 그의 대첩비를 찾아 가 봐야겠다. [국문]

준장 진급뒤 술자리 시비 끝 경무대 진입소동 이승만 대통령의 진노 사 혁혁한 戰功물거품

다. 그의 나이 31세. 군인이면 모두가 선망하는 "별",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도 어렵다고들 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5군단 부군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우쭐했고 빠지고도 싶었는지, 젊은 나이로 주체할 수 없었다.

부임하자마자 부군단장실로 군악대장과 의장대장을 불러들여 기합을 넣었다.

"이 새끼" 군대의 거친 말투가 거침없이 쏟아졌다. 장군이 부임하는데 왜 군악대와 의장대로 환영하지 않았느냐고 들볶았다. 여기까지는 젊은 혈기려니 웃으며 넘어가겠는데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왔다. 당시 장군들은 살벌한 전방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상경하면 으레 요정에서 술을 마셨다. 옆에는 기생

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했으나 강패들은 이미 줄행랑을 친 뒤였고 그중 한 명을 겨우 잡았다. 송 장군은 대로, 장군을 폭행하는 자는 빨갱이보다 나쁜 놈이라고 특무대(지금의 기무사)로 연행하려고 지프 뒷바닥에 묶어 앉혔다.

호자동 특무대로 간다는 것이 삼청동으로 잘못 들었다.

서울 출신 아닌 운전병이라 경무대(청와대) 경호실 초소에서 정지신호를 받았다. 만취상태의 송 장군은 "누구야, 장군의 진로를 왜 가로 막느냐"고 대갈했다. 경호실 초소 경찰은 공포로 응답했다. 그리고 긴급히 투입된 경호실 경찰이 송 장군의 지프를 애워쌌다.

한밤중의 총성에 이승만 대통령이 잠

외길 언론인 朱孝敏 선생을 추모함

구랍 주효민(朱孝敏) 선생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1년여 투병 끝에 40여년간 살아온 종로구 누상동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슬픈 마음 가눌길 없는 가운데 남다른 감회가 떠올랐습니다.

1957년 내가 신문기자를 갖 시작했을 때 주효민 선생은 여러 신문·통신사의 요직을 역임한 언론계의 대선배였다. 그해 내가 한국일보 견습 67기로 입사했을 당시 주 선생은 논설위원 겸 편집부국장이었다. 주 부국장이 작고한 김창열(金昌悅·전 한국일보 사장) 씨의 평양초등학교 대선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이에선 주 부국장보다 주 선생으로 통했다.

그런 주 선생과 처음 가깝게 된 계기도 조그마한 기사 한건 때문에 호되게 야단을 맞은 이후였다. 당시만 해도 한국일보 편집국에 지방부가 따로 없어 사회부 신출내기 기자가 지방판 기사를 정리 편집했다.

어느 날인가 지방기사 하나를 멋대로 빼고 나머지 원고를 편집부에 넘긴 뒤 뭔가 꺼림직해 주 선생에게 이 사실을 보고드렸다. 기사 내용은 고향 친구의 형(고교 교사)을 좋아하던 여고생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평소 온화하던 주 선생이

정색을 하고 야단 치셨다.

“신문기자에게도 사(私)는 있을 수 있으나 기사를 빼는 자유는 없다”고 기자의 자세에 대해 장장 30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다음 날 다시 넘기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때 느낀 깨달음은 내 신문기자 생활에 두고 두고 좌우명이 되었다. 주 선생은 진솔

하고 강인한 원칙주의자였다. 평소 인품은 부드러운데 원칙에 어긋나는 기사나 지면 제작에는 화를 내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그런 분이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1950년대초 우리 언론 사상 첫 주일 특파원시절 취재 경험담이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이면사, 유태하 대표, 김용식 공사와의 얽힌 이야기도 기억에 생생하다.

1963년 한국일보 논설간사로 복직, 부주필, 주필을 역임할 때 다시 만나 뵈게 되었다. 장기영(張基榮) 한국일보 사장이



故 주효민 선생

부총리로 입각하면서 집필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지금 짐작이 된다. 그러나 한국일보 경제사설은 손색없었다는 것이 훗날 평이기도 하다. 1986년 내가 한국일보 주필이 되어 다시 논설고문으로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근무하는 방 층수는 달랐으나 매일 오후 논설회의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 사설 논의를 경청하고 한 달에 두어번 경제사설 집필도 하셨다.

60대 중반인데도 그 필력엔 연령을 느낄 수 없었다. 주 선생과는 묘한 인연도 있다. 똑같이 문선부를 울리는 사내 3대 악필(?)로 유명했다는 이야기다. 주 선생 원고의 문선은 전담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그 글씨는 힘이 넘쳐났고 문장력도 뛰어났었다. 주 선생은 청빈하고 남에게 아쉬운 부탁을 안하는 분이셨다. 누상동의 일제때 적산 가옥에서 40여년간

이사하지 않고 말년에는 빌라로 수리해서 사셨다. 언론계에서 웬만큼 유명해지면 적지않은 선배 동료들이 관계, 정계 혹은 재계로 옮겨 활약한 풍토에서 언론계 외길을 살아오신 주효민 선생.

해방전인 1942년 경성일보에 입사. 1987년 한국일보 사인으로 언론계 생활을 마치시기까지 강직하고 청빈하게 살아오신 언론인의 귀감이었다. 주 선생이 생전에 수상하신 서울시 문화상, 아시아신문재단언론상, 고재욱(高在旭)기념 언론상, 왕관문화훈장 등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하지 않고 깨끗이 살아온 업적에 비해 작은 상인지도 모른다.

주 선생이 신문사를 떠나신 뒤 3년 전까지 만해도 청진동 설령탕집에서 더러 만나 뵈면 소주 반병으로 반주하시던 애주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제 비록 유명을 달리 하셨지만 저 먼 세상에서나마 우리 신문계의 건전한 발전과 후배들의 올바른 처신을 지켜봐주시리라 믿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빈다. [4]

조 두 흠

(본회 회우·전 한국일보 주필)



회 우 동 경

언론재단 창립 10주기념식



★ 高學用(한국언론재단 이사장) 회우는 1월 1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장한 高大 언론인상 수상



★ 具素書 회우가 1월 19일 고려대학교 출신 언론인 친목모임인 고대 언론인 교우회가 선정한 '장한 고대 언론인상'의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익광고 협의회 위원장에



★ 金銀九(KBS사우회 회장) 회우는 1월 9일 한국방송광고공사 2009년도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宋 復교수 초청 토론회



★ 南時旭(광화문포럼 회장) 회우는 2009년 1월 14일 오전 7시 30분 세종홀에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중 서법 교류전 개막



★ 차경正(전남일보 사장) 회우는 2008년 12월 15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한중 서법교류전’에 참석해

개막 테이프를 끊었다.

한국 신문 윤리위원 위촉



★ 成炳旭 회우는 1월 15일 제 91차 한국신문 윤리위원회에서 독자불만처리위원 겸 윤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유대한신문 편집인에



★ 趙宰馨(본회 명예회장) 회우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의견국기념사업회(부회장)의 기관지 ‘자유대한신문’(2008년 11월 1일 창간)의 편집인으로 취임했다.

시사뉴스 투데이 상임고문



★ 千相基(경기대 초빙교수) 회우는 최근 인터넷 일간신문 시사뉴스 투데이(www. SISAnewstoday.kr) 상임고문에 취임했다.

17차 바른말 보도상 시상



★ 韓永燮(사단법인 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 회우는 2008년 12월 8일 11시 한국방송공사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제 17차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자는 KBS 1TV 아침 ‘뉴스광장’ 진행자 박장범 기자와 MBC 보도본부 ‘뉴스와 경제’ 진행 박승진 기자 그리고 SBS ‘8시뉴스’ 진행자인 박진호 기자 등 3명이었다.

회비 내신 회우

· 2009년분

金聖舜 金鐘玉 白桓基(이상 07, 08년도 분) 張昌榮(06년도 분) 高在瑋 高學用 宋庸植 宋忠燮 尹相哲 李鍾全 崔鍾守 許東鎭(이상 08년도 분) 姜振馨 桂成一 高在瑋 孔大植 吉允錫 金健二 金庚泰 金官泰 金貴濟 金基元 金吉弘 金斗根 金炳模 金永凡 金潤德 金銀九 金仁圭 金楨基 金鎭珪 金鏞董弘石 羅龍京 閔 畿 朴基秉 朴文斗 朴錫興 朴丞塚 朴在權 白日鎭 成樂五 孫一根 宋善武 宋鎬昶 申禹植 安鍾禹 梁輝夫 尹奇炳 尹炳贊 尹亮重 李誠浩 李淳紀 李殷明 李昌烈 李泓雨 全龍湖 鄭龍起 諸宰馨 趙成夏 池連興 池龍雨 崔貴照 崔信鎬 崔鍾守 韓永鐸 (이상 09년도 분)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발전기금 기탁

金道鎭 본회부회장
12월 30일
50만원 기탁.



고령회우들에 설 선물

대한언론인회는 설을 맞아 米壽 이상의 고령 회우 15분과 고문단에게 설 선물을 증정했다.

올해 米壽이 되는 회우는 金尙鉉, 朴永來, 李錫弘, 李志雄, 崔炳郁씨 등 5명이고 米壽 이상의 회우는 金昞哲, 閔圭鎬, 李貴岩, 林學洙씨 등 4명 그리고 卒壽 이상 회우는 金允津, 金鎭燮, 文濟安, 嚴基衡, 林寅翁, 李命同씨 등 6명이다.

자녀결혼

- 金桓基 회우 자녀 결혼 2009년 1월 17일
- 金在根 회우 자녀 결혼 2009년 1월 17일

부 음

- 金英軫 회우 1월 25일 별세.
- 李炯均 본회 부회장 모친상 2009년 1월 12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에서.
- 朱孝敏 전 한국일보 주필 별세 2008. 12. 26일 19시 이대 목동병원에서. 12월 29일 영락교회 장으로 치렀다. 유족은 명구·명하(개인사업)2남이 있다.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주소·전화번호 변경

- 黃大淵 (122-200)서울 은평구 진관동 12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11-302
- 朴珍列 휴대전화 011-750-8877이 010-3750-8877로 변경
- 成樂五 휴대전화 017-213-9883이 010-4134-9889로 변경
- 宋斗彬 휴대전화 019-242-2395가 010-2421-2395로 변경
- 安聖悅 휴대전화 011-239-2805가 010-7427-2805로 변경

알림

2009 첫 건강강좌

2009년 첫번째 건강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제 목 : “現代社會와 老人의 性”
날 짜 : 2009년 2월 14일(토) 오후 3시
장 소 : 이운수 피부비뇨기과(명동입구)

연 사 : 이운수 박사
연락처 : 02-2001-7621, 732-4797

한국경제

성공을 부르는 습관



미국의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일본경제신문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파이낸셜타임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지구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나라에는
대표적인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직장인에겐 성공을 위한 조언을,
CEO에겐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을,
가장에겐 재테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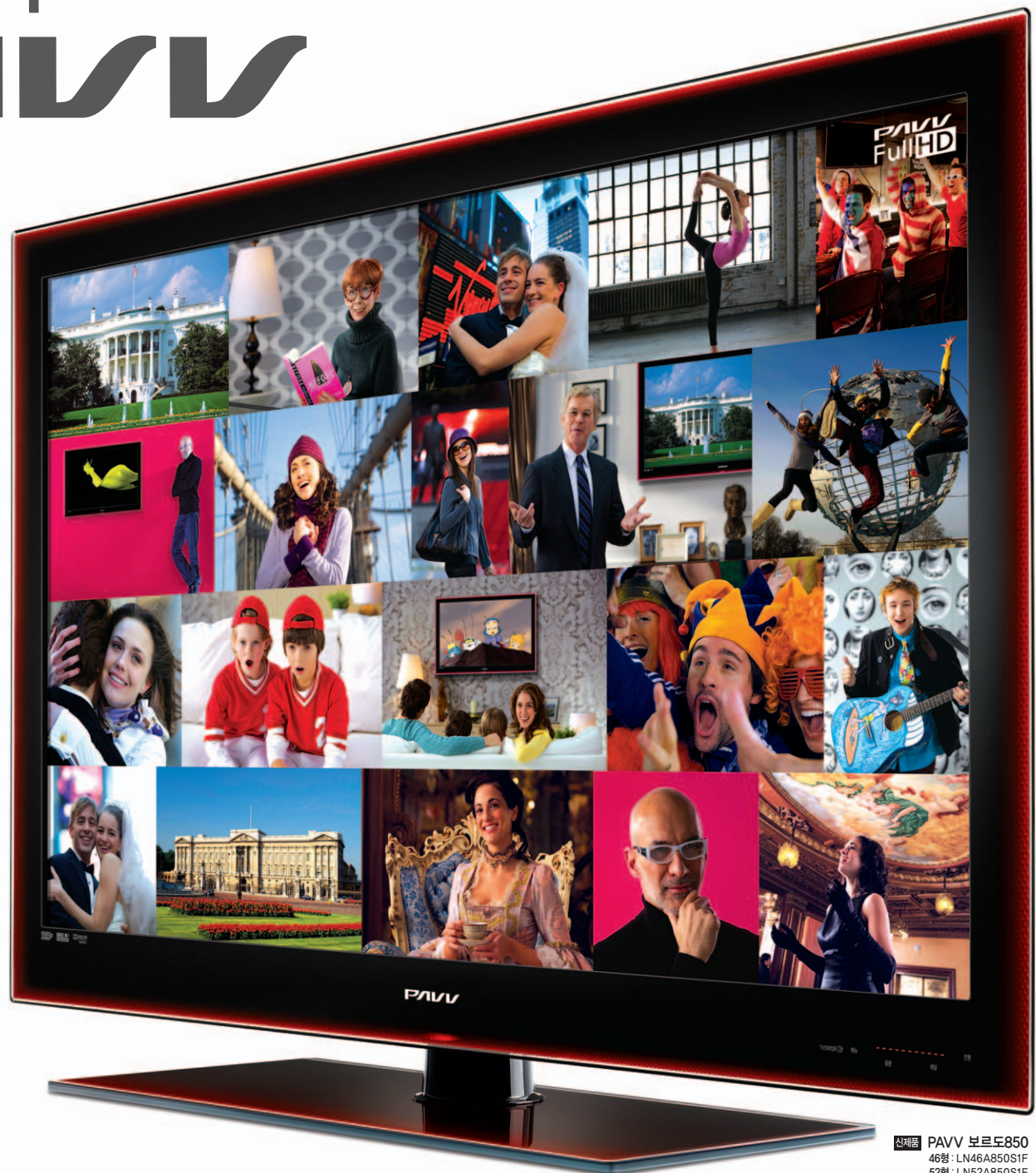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세계 1위 PAVV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TV,
세계는 PAVV를
보고 있습니다

이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당신입니다



신제품 PAVV 보르도850
46형 : LN46A850S1F
52형 : LN52A850S1F

Allfree

창립 40주년 기념 12개월 특별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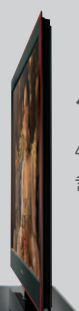
80만원은 선포인트 할인받고, 잔액은 12개월 부담없는 할부~
• 삼성카드 100~300만원 이상 결제시 해당점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세계가 놀란 화질

블랙패널 Full HD로
더욱 선명한 PAVV



세계가 놀란 디자인

44.4mm 크리스탈
슬림 디자인



세계가 놀란 기술

CES 혁신상 7년 연속 수상
IF 디자인 어워드 6년 연속 수상
EISA 어워드 6년 연속 수상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SAMSUNG